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 시 |

2011. 10. 26 (수)

| 장 소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300강당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11. 10. 26 (수)

| 장소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300강당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일시 : 2011. 10. 26(수) 14:00~17:00
- 장소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300강당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 전라남도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통일교육원) ○ 축사(교육청)	○ 진행 : 전라남도교육청 ○ 인사말 : 개발협력부장 ○ 축사 : 부교육감 또는 국장
14:40-15:10	30분	○ 정책설명 - 남북관계 현황,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교육원 - 학교통일교육팀장
15:10-15:30	20분	○ 휴식	
15:30-17:00	90분	○ 워크숍 - 발제 I, 발제 II - 토론	○ 사회자 : 조정자 장학사 ○ 발표자 (교사 등 2명) - 나동주 (강진중앙초 교장) - 김유옥 (영광여중 교사) ○ 토론자 (교사 3명) - 배 건 (영암초 교장) - 김성수 (현산중 교장) - 심한식 (장흥여중 교감)
17:00		○ 폐회	

목 차

1. 특강자료
남북관계 현황 및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7
정 분 희(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팀장)
2. 발제자료 I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고찰 19
나 동 주(강진중앙초 교장)
3. 발제자료 II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의지 함양 49
김 유 옥(영광여중 교사)
4. 토론자료 I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77
배 건(영암초 교장)
5. 토론자료 II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97
김 성 수(현산중 교장)
6. 토론자료 III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으로서
다문화교육적 접근 113
심 한 식(장흥여중 교감)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특강자료 |

남북관계 현황,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정분희 |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팀장



통일교육의 방향 및 학교 통일교육

2011. 10. 26



목 차

● 들어가며

●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 학교 통일교육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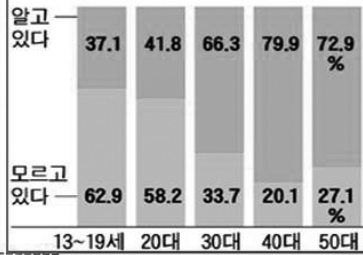
청소년 통일의식

6·25전쟁 발발 년도 인지도(3·25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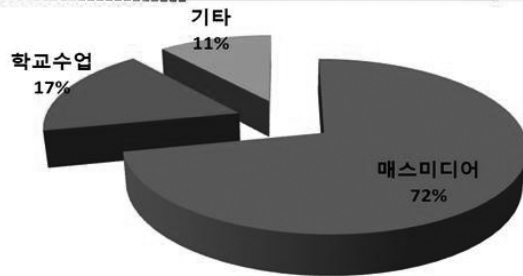


6·25 전쟁 발발연도 인지도

단위: %, 한국갤럽



통일 및 북한 정보 취득 by



통일교육 환경

1.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미래에 대한 관심 집중

- 통일문제를 실천적 관점에서 담담하고 대비
- 새로운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2. 미래세대의 통일·안보의식 고취 필요

-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통일문제에 무관심
- 청소년들의 50~60% 정도가 6·25전쟁 발발연도 모르는 현실

3.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

- 집단간·세대간 차이를 넘어 조화와 통합 노력 필요
- 북한실상, 한반도 안보상황,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대한민국 헌법

전 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통일교육지원법

2조1항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

3조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



통일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

통일을 대비한 교육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우리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교육

안보적 현실 교육

* 통일교육 목표의 변천

반공 → 승공 → 국토통일 → 민주적 평화통일 → 북한공산체제 실상파악/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 민족공동체 인식/인류공영에 기여 → 북한바로알기(북한동포어제)/민족동질성 회복



통일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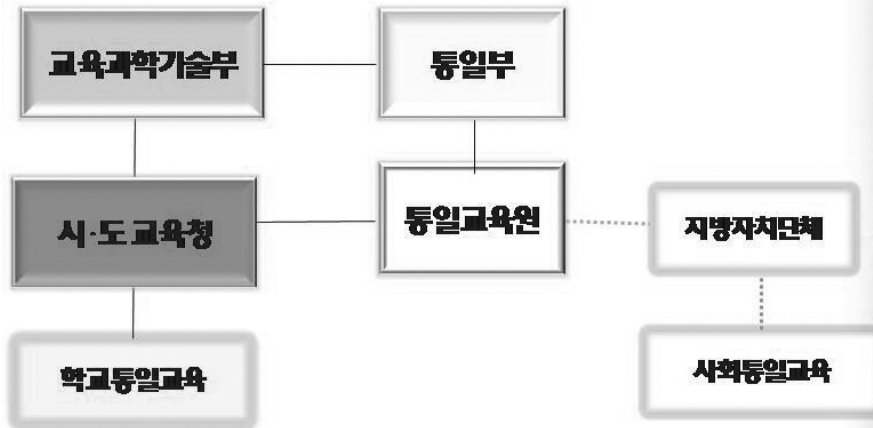
▪ 목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지침 제1조)

▪ 기본방향



학교통일교육 지원 체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통일글짓기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실시



- 2010년 총 156회, 32,859명 교육
- 2011년 총 224개교, 52,000여명
- 특강, 퀴즈, 게임, 통일신문 만들기 등

✓ 통일글짓기 대회

- 초·중·고교생 대상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2011년 5,106개교 총 63만여명 참가(16개 지역)



통일교육 시범학교 지원

- '09년 : 20개교 → '10년 : 32개교 → '11년 : 48개교(16개 시도 학교급별 1개교)
 - ** '10년 : 초 12, 중 15, 고 5
- 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교사역량 강화 지원
48개교(16개 시도 학교급별 1개교)



통일부

통일교육 강좌 및 교사 대상 워크숍

- 교장(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방향, 통일교육의 내용, 교육 기법 등에 대한 토론 및 정보 공유



- 교장(감) 대상 「통일교육강좌」 지원
 - 2011년 3회 실시 예정
 - ** 09년 부산·대구·경북지역 개최
 - ** 10년 경남(6.23), 대전(7.28), 충남(10.20), 충북(12.10) 실시
- 도덕·사회과 교사 대상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진행
 - 2011년 5회 실시 예정 (울산·경남·제주·경기·전남)
 - ** 09년 제주·경북·강원·충북·충남 지역 개최
 - ** 10년 전북(3.26), 대전(6.25), 대구(10.1), 광주(10.29), 연천(12.3) 실시

통일부

대학생 통일교육

✓대학통일논문 현상공모(11.5.1~9.10)

- 1982년 이래 매년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논문 공모
- 대학사회 내 통일 관련 학술연구 촉진, 2011년 30주년 특별공모 예정
- ※ 최우수 1편 등 총10편 장관상 및 연구 특전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 통일포럼

-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발표·토론하는 장



※ 2010년 총 18개 대학 지원, 1,580명 참석, 2011년 확대 지원 (21개 대학)



IPTV 통일교육 콘텐츠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IPTV 콘텐츠 개발
- 2010년 교과과정과 연계한 VOD(172편), 특별기획 프로그램(8편) 개발
- 2011년 학교현장 활용도 제고 및 콘텐츠 추가 개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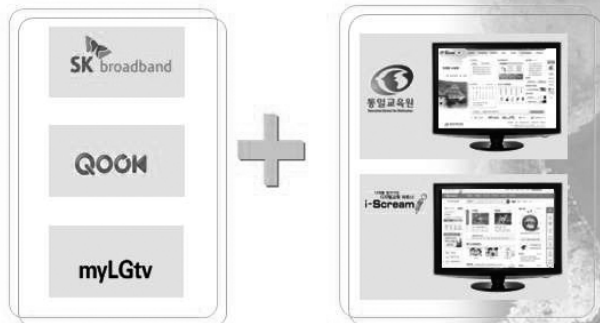


교육적 효과



현장 활용도 제고

학교 IPTV 활용



교재 및 발간물

✓기본교재



-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를 다룬 「북한 이해」와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다룬 「통일문제 이해」 발간
- ※ ' 10년 45,000부 → ' 11년 10만부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 제24호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발간
- 제25호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 제26호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 구현」
- 제27호 「통일비용보다더 큰 통일편익」
- 제28호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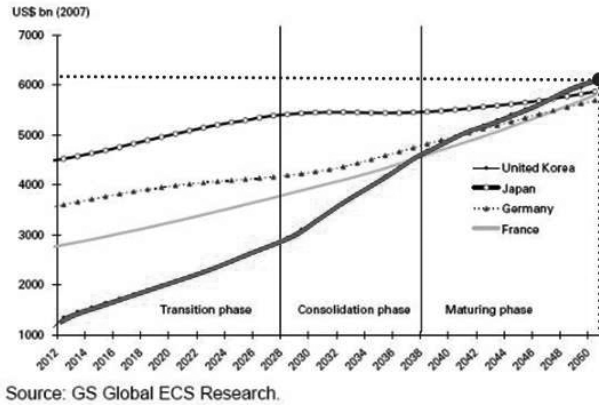
2011년 신규과제

- ◆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 개설, 지원(7개 대학)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각 대학내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와 협조
- ◆ 「통일미래글로벌리더십 캠프」 실시
 - 전국 고교 1-2학년 100명 대상
 -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설명, 통일미래비전 특강, 영어스피치 경연대회, 통일음악회,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
- ◆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 청소년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중심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북한 경제 자료 등



통일의 미래상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2009, 골드만삭스 보고서)



- 남북 통일시 30~40년 내 佛, 獨, 日 등 G7 추월
- 2050년 통일한국 GDP 6조 560억 달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

미래 우리 국가발전의 최대 계기는 한반도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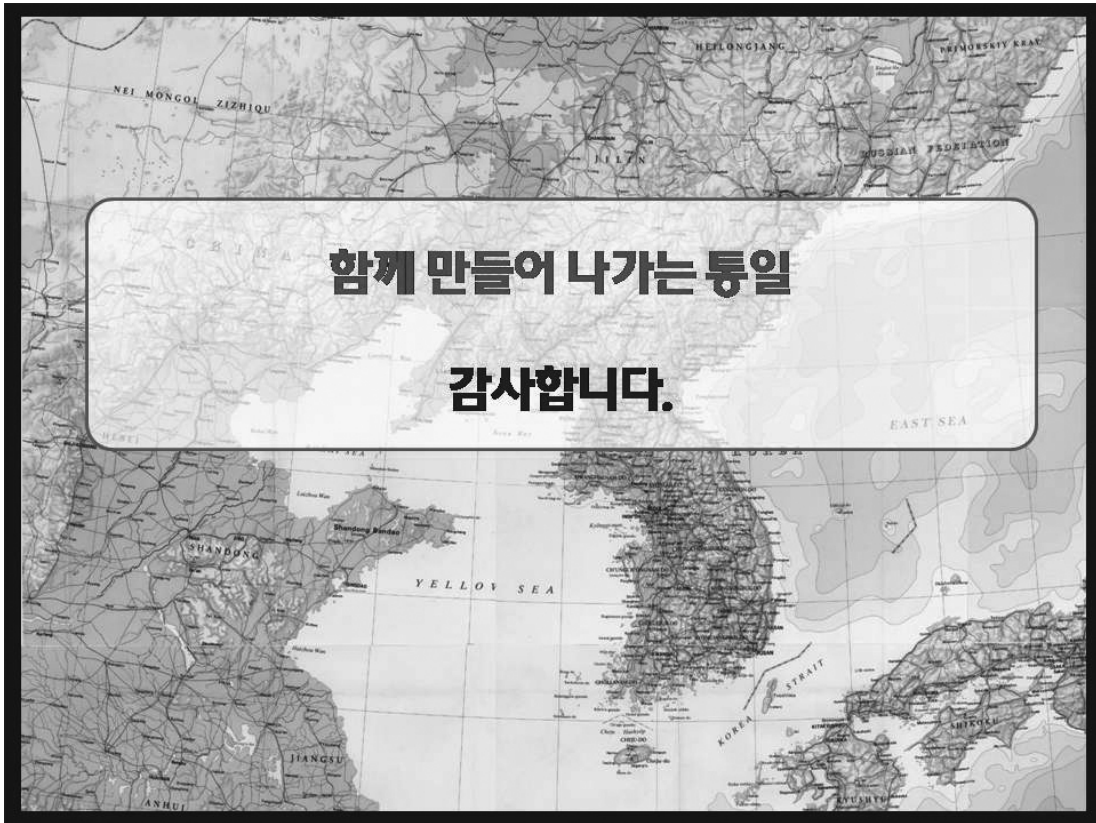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에 의한 통일이 될지 예측 곤란

-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달성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우리 모두의 과제

- 정부가 중심이 되어 차질 없이 준비
- 통일대비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발제자료 |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고찰

나동주 | 강진중앙초 교장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고찰

나 동 주 (강진중앙초등학교 교장)

- I. 서론
- II. 대북정책 비교
- III.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통일 안보교육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새로운 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그에 따르는 정책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시대·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집권자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 또는 '대북포용정책'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안보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의 불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제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해결에의 기여와 양자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유호열, 2010). 이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가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두어졌다.

본 고(稿)의 대북정책 관련 내용은 온라인 사이트(happy campus)에 탑재된 유지영(jy7278)의 리포트 내용을 일부 요약 발췌하여 수록하였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며 그 진전에 따라 북한의 시장 경제 편입, 북한 경제발전 지원 등을 통해 10년 내에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불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의 정책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배경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핵의 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일방적 대북지원에 비해 선군정치는 변함이 없고 개혁·개방을 끌어내지 못했고, 대북 저자세로 국민의 비판과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통일부, 2009).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견주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 안보교육관련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시기(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14과목 중 초등학교 2학년의 바른생활과와 3~6학년의 도덕과와 사회과에,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이명박 정부)에는 총 13과목 중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의 바른생활과와 3~6학년의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편제되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내용이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북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온전히 함의(含意)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稿)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통일 안보 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고찰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있는 통일 안보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대북정책 비교

1. 환경적 요인

가. 김대중 정부(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1) 대내적 환경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라는 정치사적 의의를 갖고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성(박건영, 1998)하에서 대북 화해협력 세력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과 일부언론의 부정적 시각으로 복잡한 정책 환경 하에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6월 기간에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행한 여론조사에서 햇볕정책은 평균 86.9% 지지를 받았고, 3대 주요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햇볕정책은 무려 83.8%의 평균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93.7%, 보수언론의 여론조사에서 86.6%,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97.5%의 지지를 받았다. 또 정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연평해전)이 포함되어 있었던 1999년 1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65.5%, 2002년 6월 제 2차 서해교전 직전의 2002년 1월~4월의 평균 지지율이 73.5%였다. 이는 햇볕정책의 지지가 가장 낮았던 1, 2차 연평해전 시에도 햇볕정책은 국민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98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국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79.81%로서 거의 80%였다(박선원, 2002). 남북과의 화해협력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햇볕정책의 기반을 다졌고,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이행하는데 주요한 국내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대외적 환경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클린턴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국제사회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조지 부시정부의 출현으로 클린턴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뒤집고, 2002년 1월 부시정부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대통령특사의 방북과 ‘고농축’ 우라늄계획 문제의 제기, 대북 중유지원 중단,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의 폐기, 북한의 NPT 탈퇴 등으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는 김대중 말기에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되었다(백학순, 2009).

더욱이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서해교전)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피해가 적지 않아서 임기 말의 김대중 정부와 햇볕정책의 추진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속해 나가는데 큰 타격을 주었다.

나. 노무현 정부(평화번영정책)

1) 대내적 환경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기본적으로 대북포용을 기조로 하였고, 대북포용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보수와 진보진영의 입장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 이익, 비전에 대한 상대적인 불확실성과 취약성, 대북 송금 특검 수용, 남북 특사파견 합의의 불이행 등으로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대북 화해협력세력의 실망과 좌절, 이탈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백학순, 2009).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문제의 중요성과 보수파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남북자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고, 남북대화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동북아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도 하였다(국정홍보처, 2008).

2) 대외적 환경

부시정부의 '북핵문제'와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대북 강경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의 대외 환경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를 통하여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규정하고, 부시정부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일관성 있게 요구하였다. 그것은 북미양자회담 개최 요구,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북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북핵문제 해결은 크게 주고 받기(일괄타결)로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정부 시기 초기 5~6년간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백학순, 2009).

2003년 6월 30일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의 착공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성공단사업에 대하여 부시정부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대북경협에 대한 반대를 하였다.

2004년 10월 18일 미국의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외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법은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숨겨진 '정치적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인권법을 이용하여 북한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파시킴으로써 북한을 '밑으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불리하고 부정적인 대외환경으로 작용하였다(백학순, 2009).

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비핵 · 개방 · 3000 정책, 상생 · 공영정책)

1) 대내적 환경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의를 결합한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부분적 문제점을 그들이 채택한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로 보아 실용주의적이지 못하고 이념에 치우쳤다고 비판하여 민족주의보다는 상생 · 공영정책의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책을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와 침체 속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으로 보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자본, 노동력, 토지, 자원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시장의 확대 및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기반을 한층 강력히 다지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경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활로개척과 함께 중장기적 발전전략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2) 대외적 환경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의 기대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국제공조를 중시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주요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북한이 관계개선에 가장 관심을 가진 나라인 미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핵문제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 틀을 존중하고 6자회담 틀에 의거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제협력 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009).

한편, 2009년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정책적 합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는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위급과 직접대화를 시도하고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하여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시정부는 노무현 정부에게 적국인 북한과 관계를 끊고 동맹국인 미국에 협력하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백학순, 2010).

남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사안별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방안들은 저마다 이해관계 내지는 선호도가 동일하지 않은 기반 위에서 내놓아지기 때문에 상호 교차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리고 각각의 행위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행위자들을 그곳으로 모을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구조 하에서 북핵문제나 기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풀어야만 하는 숙제일 것이다(통일연구원, 2009).

〈표 1〉 사안별 각국의 입장

구분	핵문제	평화정착	경제공동체형성	인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핵포기 원칙 고수 ◦ 더 큰 당근과 더 큰 채찍에 바탕을 둔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접근에 기반을 둔 핵문제 선행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국제규범 수용 및 개방정책으로 변화이 있지 않은 이상 참여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문제와 안보문제 연계한 적극적 해결 모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지지 ◦ 해결방법은 강경하지 않은 방법 선호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우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적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해소 우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형성 가능하다고 여김. ◦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공을 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정간섭으로 치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입장 견지 ◦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동시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북 수교를 통해 한반도 영향력 확보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는 미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대응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보유 용인 불가 ◦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형성과정에 참여하려고 적극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 관심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정간섭으로 치부

*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2. 전략적 요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여 민족의 공존과 공동발전이라는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배경 하에서 추진된 것이다(성령룡, 2008).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여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그동안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 둘째, 지난 정부가 이룩한 통일·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셋째, 동북아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추진 시야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통일부, 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전략상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적 목표와 비전에 있어서 대북포용정책은 '선남북관계개선-후통일실현'이라는 기본적 인식하에 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안보 및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개선문제에 있어서 대북포용정책은 안보분야(북핵해결 포함)와 남북관계 개선분야(특히 경제 분야)간에 진전의 균형, 즉 '안보확보·북핵해결-남북교류협력관계의 동시 진전'이라는 양자병행접근의 추진 전략을 갖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상호신뢰 구축의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매우 적극적인 대북접근전략이다. 이런 전략 하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998년 북한의 속초 잠수정침투,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남북대화의 개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경협사업(특히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 대북지원의 지속 등 남북관계의 양적·질적 개선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문제나 개혁·개방문제에 있어서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남적화정책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호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자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에 담긴 평화와 화해협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를 「6·15 공동선언(2000.6.15)」, 「10·4 정상선언(2008.10.14)」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성경룡, 2008).

〈표 2〉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체계

구분	김 대 중	노 무 현	이 명 박
방침	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정책 (상생·공영정책)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하여 현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개방·3000정책: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고,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주민의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정책 ◦ 상생·공영정책: 새로운 평화구조가 창출(비핵)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개방3000)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조화해 나가며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증진 ◦ 남북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동체의 건설: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남북군사적 신뢰구축·긴장완화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공동체의 달성: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지원, 남북공동이익의 경제협력 추구 ◦ 행복공동체의 실현: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 추구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일방적 흡수통일 반대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 ③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용과 생산성의 추구 ② 원칙에 철저히되 유연한 접근 ③ 국민합의에 기반한 투명한 정책의 추진 ④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추진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의 정부'의 계승(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②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한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 증진과 공동번영 촉진 ③ 관광, 제조업의 범위를 벗어나 조선산업과 자원개발 등으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의 전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핵화를 경제협력의 선결조건으로 설정 ② 창조적 실용과 결과의 생산성 추진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 추진 ③ 공생·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과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④ 남북대화의 추진과 인도적 차원 ⑤ 국민합의와 국제협력의 중시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화해협력, 국가연합, 통일국가 수립의 3단계 접근 ② 안보-경협을 병행추진 속에서 화해협력 사업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의 정부의 3단계 접근과 안보-경협 병행 전략 수용 ② 남북화해협력의 실질적 확산과 심화에 집중 ③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 구축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핵·개방 3000'의 포괄적·단계적 추진(국제협력 하에 북한의 비핵화·개방화 유도 및 정상국가화 촉진, 경제지원확대) ② 상생·공영의 경제협력 확대(한반도 경제선진화 기여) ③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남북주민의 행복 추구)

* 출처 : (성경룡, 2008)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직후부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과 달리 '비핵·개방·3000'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비효율적이고 실패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성경룡, 2008). 그에 따라 기존의 대북포용정책과 달리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졌고, 비핵화(핵폐기)가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북핵문제와 함께 그 이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남한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소득을 중산층 초기 단계인 3,000달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 결과 남북이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여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추진 전략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적 목표와 비전문제에 있어서 '선비핵화·단계별지원-후통일실현' 기본적 인식 하에 평화공동체의 건설, 경제공동체의 달성, 행복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대북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 달성을 장기적 목표에 두고 단·중기적 전략목표의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실현,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추구,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남북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공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안보확보를 최우선적 전제로 삼고 그 전제의 충족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시키는 접근, 즉 '<주>안보·북핵해결-<중>남북교류협력의 연계'라는 양자주중 연계접근의 추진전략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라는 추진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추진기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것을 대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경제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도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도달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는 남북협력 구도보다는 국제협력(국제공조)의 구도, 특히 한미동맹의 축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추진전략을 갖고 있다.

셋째, 대북포용정책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북한이 최우선으로 비핵화로, 그리고 차선으로 개방으로 나오도록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자는 추진 원칙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본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권력계승에 의해 유지된 공산 독재정권이나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공산화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핵화의 이행에 대응하여 경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북한인권문제, 납북자문제, 국군 포로문제 등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를 시정하여 정상국가화까지 유도한다는 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넷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경분리원칙과 달리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대북경제지원과 연계하여 해결을 시도하려는 '정경연계원칙'에 입각한 '연계적 상호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나선다는 추진 기초를 갖고 있다. 우선적으로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에 나서고 미국과의 21세기 전략동맹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한 가운데 남북대화화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나가겠다는 추진전략으로 '선국제협력-후남북협력' 구도 하에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추진전략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합의 이행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강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즉, 국제공조와 남한측의 조건부 대북 지원을 중심으로 외부(남한과 미국)의 힘에 의한 북한의 타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성경룡, 2008).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도발로 벌어진 천안함 사건으로 잠복되어 있던 남남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다시 안보문제로 모아지는 시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III.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통일 안보교육

1.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교육 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 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 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가는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교육 과정을 이해하여 나가는 인식과 기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 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실현의 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본다.

가. 바른생활과(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변해가는 단계이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발달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실 등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지도요소의 상세화〉

- **2학년 - (5) 나라 사랑하기 - (다)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북한 사람도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통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① 북한 사람도 같은 민족임을 알기
 - ②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가지기
 - ③ 통일의 필요함 알기

나. 도덕과(3~6학년)

통일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도덕과에서는 하위목표로써 국가, 민족,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분단의 현실과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일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시민으로서 능력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지도요소의 상세화〉 (4) 국가·민족생활

- **3학년 - (나)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 ①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 ②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 ③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④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 **4학년 - (나)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①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노력해야 할 점들
 - ③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 ④ 일상 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 5학년 - (나)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적절한 방법을 이해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 ①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 ②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③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 ④ 일상 생활에서 평화 통일의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 6학년 - (가)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을 알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활 자세를 가진다.

- 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②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 ③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④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다. 사회과(6학년)

통일 안보교육 관련 내용은 6학년에서만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원 : 6학년, (라) 함께 살아가는 세계

1) 단원 설정의 취지

……(상략)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국력 신장,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데 취지를 둔다.

2) 단원의 목표

- 남북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통일의 노력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3) 주제별 지도의 관점 및 요소

다) 통일과 민족의 앞날

이 주제에서는 국토 분단의 원인과 함께 남북 회담, 이산 가족 찾기 등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파악하게 한다. 또, 남북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통일 노력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화 과정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알게 하고,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p>① 남북의 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과 국토의 분단 ◦ 6·25 전쟁과 휴전선의 설정 ◦ 남북 분단의 고착화 	<p>② 평화 통일로 가는 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 회담 ◦ 이산 가족 찾기 ◦ 금강산 관광 사업 ◦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 	<p>남북의 평화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므로, 우리 민족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p>
--	--	---

2. 2007년 · 2009 개정 교육과정

2007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 이해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학습과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 바른생활과(2학년)

이 주제는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며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아오면서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하였으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한 형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필요성을 알게 하여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깨닫고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지도한다.

<주요 지도요소의 상세화>

- **2학년 - (5) 나라 사랑하기 - (나)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에 관심을 갖는다.
 - ① 북한 사람도 같은 민족임을 알기
 - ②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가지기
 - ③ 통일의 필요성 이해하기

나. 도덕과(3~6학년)

3학년에서는 나라의 상징과 나라사랑,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이 지도내용으로 애국·애족이 주요 가치 덕목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4학년에서는 우리나라·민족에 대한 긍지 갖기,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이 지도내용으로 애국·애족, 통일의지가 주요 가치 덕목으로서 제시되었다. 5학년에서는 북한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지도내용으로 통일의지가 주요 가치 덕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편견 극복과 관용,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로운 세상이 지도내용으로, 관용, 평화, 인류애가 주요 가치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주요 지도요소의 상세화> ③ 국가·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 **3학년 - (나)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남북 분단의 배경을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찾아보고, 남북한 분단의 어려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①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인 배경
 - ②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어려움
 - ③ 남북 분단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 **4학년 - (나)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를 찾아본다.
 - ① 분단 비용 및 통일의 기대효과 등 통일의 필요성 찾기
 - ②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 ③ 민족 통합을 위한 우리의 자세

• **5학년 - (가)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정서적 통합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북한 동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동포와 교류·협력해나가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나 새터민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 동포와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방법과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본다.

- ① 북한 동포의 생활상 및 문화적 차이 알기
- ② 북한 동포와의 인간적 교류와 협력 방안
- ③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

• **6학년 -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가를 살펴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전체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통일과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 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
- 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다. 사회과(6학년)

사회과에서의 통일 안보교육 관련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6학년에서만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원 : 6학년, (6)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1) 단원의 개관

……(상략) 최근의 국내외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민족으로서 우리나라와 겨레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탐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하략)

2) 교수·학습 내용

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 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은 이데올로기 갈등이 줄어드는 국제 사회의 변화 추세에서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 문화의 이질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의 사례를 활용하거나 최근 남북 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방안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새터민의 사례 등도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남북 간 갈등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IV. 논의

1. 김대중·노무현 정부 ↔ 제7차 교육과정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함에 동시에 대북포용정책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전 시기까지 고착되었던 ‘전쟁·대결·단절·대립·쇠퇴’의 남북관계를 ‘평화·화해·교류·협력·번영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토대와 기틀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였다.

둘째, 남북교육과 인적·물적 교류의 차원에서 대북포용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 남북교역의 규모는 1989~1997년 동안에 1,546백만 달러에 불과 했으나 1998~2007년 동안에는 7,64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된 개성공단사업은 2005~2007년 동안 가동 기업수 65개, 생산액수는 2007년말 현재 북측 22,538명, 남측 785명으로 총 23,323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보장, 이종과 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경협합의서가 타결되었다. 한편, 남북 인적 교류도 1989~1997년 동안 2,989명에 불과했으나 1998~2007년 동안에는 무려 432,538이나 되었다.

셋째로, 남북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보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1990-1997년 동안에 생사확인이 1,014건, 서신교환이 4,047건, 제3국 상봉이 155건에 불과했으나 1998-2007년 동안에는 각각 2,724건, 7,047건, 1,483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중에 공사를 완공하게 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정례화·제도화 기반도 마련하였다. 한편 대북지원에서는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이 1995년~1997년 동안 3,118억원이었

으나 1998~2007년 동안 8,872억원이고, 대북포용정책에서 실시된 정부차원의 식량 차관은 2000~2007년 동안 8,872억원이며, 민간차원의 무상지원은 1995~1997년 196억원, 그리고 1998~2007년 동안에는 6,975억원이었다.¹⁾

넷째로, 2002년 10월 북핵문제가 재발되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조성되었지만, 남북관계의 정상화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과 대통령특사과건 등 남북대화채널, 6자 회담,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설득·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중대제안(200만 kw 전력의 대북제공)을 통해 1년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에 북한을 다시 참여시켰고, 그 결과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에 관한 최초의 합의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2006년에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참여정부는 즉각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철도·도로의 연결, 해운 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일부의 철책 및 지뢰제거와 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의 설치 등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밖에 대북포용정책은 남북 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교류분야가 문화·예술·학술·체육·종교·방송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민간교류행사가 서울·평양·금강산·개성 등 한반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성경룡, 2008).

두 정부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 안보교육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

1) 이상의 통계수치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통일부(2008). 《통일백서》. pp. 311-321.

먼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바른생활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지도내용의 선정과 도덕과의 3학년 분단의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4학년의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학년의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그리고 6학년의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등의 지도내용 선정은 학년의 위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적 배려가 돋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6학년 사회과의 '통일과 민족의 앞날'이라는 제목 속에 이산가족 찾기,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언급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두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포용정책인 햇빛정책에 대한 학교현장의 체계적인 안내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년단계를 고려하여 재구성되고, 학습감으로 채택되어 시사성 높은 교수-학습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관련 상급 기관의 소홀함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당시의 교육과정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제 때에, 시급히 반영할 수 없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이며,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교육과정 개정 제도의 모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 방법이 지속적이고, 수시적이며, 부분적인 개정 원칙을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둘째,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력의 창출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남북교역의 규모가 1,500만달러에서 7,600만달러에 이르는 등 막대한 경제효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정도로 개성공단을 이해하는 모순을 야기하였으며, 특설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개성공단의 이해를 돕는 학습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과 정신이 학교현장에 파급되지 않았으며 결국, 전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얻는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당시 대북정책의 뇌관으로 작용하였던 북핵 폐기에 관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기본 자세를 견지하면서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장관급회담과 대통령특사파견 등 남북대화채널, 6자회담,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 약속 이행을 설득·촉구한 목적이 결국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이다.

넷째, 이 시기에는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민간교류행사가 서울·평양·금강산·개성 등 한반도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결국 통일 기반 조성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의 무드를 조성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간교류의 활동 내용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동참하려는 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태도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북한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즐겁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족애와 통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그들의 외모와 응원 열기만을 부각시키는 일부 언론들의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교육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학습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이명박 정부 ↔ 2007년·2009 개정 교육과정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틀을 정상적인 방향과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위 과거의 끌려다니기식 접근 또는 ‘퍼주기’ 논란 등이 종식되었다. 특히 남북관계 협력이나 대북지원 등에서 소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고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유호열, 2010).

2010년부터 남북관계에는 대화와 협력, 대립과 갈등의 이중주,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대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포격을 주고 받는 교전을 치렀고,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수많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아직까지 상당한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2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남북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소위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최용환, 2010).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등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의 잘못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등으로 단호히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통일부는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구성 및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반도 비전포럼과 코리아글로벌포럼 등을 개최하며,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시대와 관련,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도 구축했고,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난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대내외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현재 가시적인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예측불허하고, 북한정부와 지도층, 주민들 각기 다른 집단들에게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면을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과 소홀한 측면이 양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의 바른생활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5학년 도덕과에서는 처음으로 새터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증(2만명)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매우 적절한 교육 내용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학년 도덕과에서는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의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구성 및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학년 사회과에서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줄어드는 국제 사회의 변화 추세에서 여전히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 문화의 이질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새터민의 사례 등도 활용하여 남북 간 갈등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원칙인 ‘실용성과 생산성’, ‘원칙은 지키되, 부드러운 접근’이라는 측면을 비교적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의 내용과 방법 등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비롯한 각종 교육활동으로 구현됨에 있어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첫째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이다. 이 두 사건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학교현장에서 특설 수업 및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활발한 교육적 지도가 미흡했다고 사료된다.

둘째는 5학년 도덕과에서 처음으로 새터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교육적 혜택에 비해 오히려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시대·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해가면서 전개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각종 교육 시책은 활발하나, 같은 민족으로서 새터민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관심이 부족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학습현장으로 끌어내는 방편으로써 연찬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통일 안보교육은 일부 관련 교과와 교사들에게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지배적이며, 관련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수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통일 안보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가. 제7차 교육과정에 언급된 통일 안보교육 관련 내용은 학년의 위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이산가족 찾기,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도내용은 시의적절하다.
- 나. 2007년 및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언급한 새터민 관련 지도 내용은 시대·사회적 상황을 의미 있게 반영한 결과다.
- 다. 필요에 따라 수정·개발되는 정부의 대북정책 및 시시각각 변하는 통일 안보 상황을 제때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 라. 통일 안보관련 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안내와 홍보 등이 요청된다.
- 마. 민간교류 행사가 이벤트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본질에 부합되는 가치·태도적인 측면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바.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학습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교원연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제언

가. 통일 안보교육 관련 교과를 현재 바른생활과, 도덕과, 사회과 등 총 3개과에서 국어과, 과학과, 음악/미술과 등으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나. 관련 교과의 기준수업시수 이외의 일부 시간을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통일 안보교육 지도시간으로 미리 확보하는 학교(학급)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다. 수시로 개정되는 현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고, 학습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대북정책 관련>

- 박건영(1998).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한국정치학회.
- 최용섭(1998). 북한의 도발행위와 대북포용정책: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과 서해안 영해 침범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집 2호.
- 김근식(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8집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선원(2002). 한반도 위기상황 때 햇볕정책 지지율 오히려 높아져: 지난 5년간 여론조사 결과 분석. 프레시안 2002년 12월 14일.
-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 통일·외교·안보.
- 통일부(2008). 통일백서.
- 성경륜(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성과·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한국동북아학회.
- 박종철·전현준·최진욱·홍우택(2009).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 백학순(2009).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세종연구소.
- 유호열(2010).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동향과 전망 79호.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학술회의. 통일연구원.
- 이우영(2010). 안보위기와 사회갈등: 천안함과 안보 그리고 남남갈등. 한반도위기와 사회갈등: 제4차화해공영포럼자료집. pp. 35~61.
- 최용환(2010). 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세아 17권 4호. pp. 244~273. 신아시아연구소.
- 홍용표(2010). 남북관계와 안보정책. 한반도위기와 사회갈등: 제4차화해공영포럼 자료집. pp. 11~34.
- 최용섭(2011). 천안함 사건 이후 나타난 남남갈등에 대한 연구.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pp. 113~139.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육과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1999). 제7차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Ⅰ,Ⅱ,Ⅲ,Ⅳ,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Ⅰ,Ⅱ,Ⅲ,Ⅳ,Ⅴ). 한울사.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초등학교교육과정해설(총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교과서 관련>

바른생활 - 2학년. 도덕과 - 3, 4, 5, 6학년. 사회과 - 6학년.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발제자료 Ⅱ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의지 함양

김유옥 | 영광여중 교사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의지 함양

김 유 옥 (영광여자중학교 교사)

- I.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 II. 학교 IPTV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 III. 영역별 창의적체험활동
- IV. 통일관련 방과 후 교육활동
- V. 결론 및 제언

I.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문제가 아직도 학생들과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될 급격한 통일 환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도덕 교과에 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교과의 내용이 한정되고, 통일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모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교육활동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또한 교육 내용 역시 통일 방안과 두 개의 국가 체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이질성 확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설문 조사에 의하면 최근 10여 년간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¹⁾라고 하였다.

본교의 사전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학생 28.9%, 학부모 42.7%,

1) 이미경(2010. pp18~20)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1997~2020)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997년 71%에서 2010년 57.3%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 1997년 85%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55.9%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인지도는 학생 34.1%, 학부모 50.2%, 교사 62.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통일의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 한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I. 학교 IPTV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

1. 교과별 통일교육 관련 학습요소 추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년 초에 학년별·교과별로 통일 관련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연간 교과학습 진도표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표-1>는 학년별·교과별 통일관련 연간 지도 내용이다.

<표-1> 학년별·교과별 통일관련 연간 지도 내용

학년	교과	단원	통일관련 학습주제
1	국어	3. 더불어 살아가기	북한주민에 대한 격려의 글쓰기
		5. 마음을 물들이는 시와 노래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6. 세상이 말을 걸다	통일에 관한 광고 만들기
		2. 더불어 이야기하자	남북한 지도자급 대화는 왜 중요한가?
		5. 너를 통해 나를 본다	북한과 관련된 영화 보고 공감한 내용 말하기
	도덕	03. 도덕적 실천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01. 가정생활과 도덕	이산 가족의 아픔
		03.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
		(3) 함께 나눔의 소중함	분단과 국가적 차원의 손실
		(3) 나라일은 이런 자세로!	통일로 이루는 평화와 인권
	사회	5.인구변화와 인구문제	북한의 인구문제
		9.우리의 생활과 법	북한의 법

학년	교과	단원	통일관련 학습주제
1	수학	원과 부채꼴	북한의 파이(원주율)이야기
	기/가	2-1.(1)청소년의 영양	북한의 주요 농산물
		2-2.(3)올바른 한복차림	남북한의 옷차림 비교
	음악	금강에 살으리랏다	북한의 명소
		몽금포타령	북한의 전통민요
리듬 · 가락에 어울리는 노랫말 만들기		통일관련 노랫말 만들어 부르기	
2	국어	2. 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북한 청소년에게 격려나 위로의 글쓰기
		3. 마음을 나누는 언어	남북한의 언어 차이
		4. 생각을 키우는 지식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2. 학교의 주인은 우리	매체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은?
		5. 성장하는 우리들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찬성하는가?
	수학	삼각형의 외심, 내심	평양, 해주, 신의주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역 찾는 방법
	과학	7.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북한의 신소재 연구
6. 태양계 가족		북한의 천문과학 수준	

학년	교과	단원	통일관련 학습요소
2	도덕	Ⅲ.통일과 민족 공동체	남북 분단의 원인
		1.민족공동체와 남북분단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북한 주민과 민족애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와 북한의 학교생활
		3.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통일의 장애 요인
	기/가	가족의 의사소통	북한의 가족생활
		상차림과 식사예절	상차림 비교
		가족의 생활과 주거	북한 생활과 주거
	음악	무궁화	남북한의 상징물
		봉숭아	일제시대의 우리민족
		해주아리랑	북한 지역별 아리랑
		리듬 · 가락에 어울리는 노랫말 만들기	통일관련 노랫말 만들어 부르기

학년	교과	단원	통일관련 학습요소
3	국어	1. 시의 표현(문학)	남북된 시인과 작품은?
		2. 중심내용 파악하기(읽기)	통일 후 언어활동은?
		5. 읽기와 매체 활용(읽기)	북한의 상징은?, 북한의 언어생활
		(2) 텔레비전의 두 얼굴	북한의 매체 생활
		5. 글과 표현	품사의 다른 용어
	도덕	2.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남북 분단의 국내외적 배경
		(2) 가치 갈등의 문제	분단과 국가적 차원의 손실
		(3) 도덕 판단의 검사	북한 주민들의 생활
		3) 진학 선택과 도덕 문제	통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
		2. 가정 친척 이웃생활과 도덕문제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
	사회	2. 경제체제의 변천과정	북한의 경제체제와 비교
		2.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북한사회의 변화
		3. 공업 발달과 공업지역의 형성	북한의 공업지역
		2. 일제의 침략과 의병 전쟁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
		3. 왜란과 호란의 극복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과학	3. 사람의 임신과 출산	북한의 출산정책
		일과 에너지	남북한의 수력발전소
		물의 순환과 날씨 변화	한라산과 백두산의 4계절
	음악	한국환상곡	단일민족으로서의 남북한
		리듬 · 가락에 어울리는 노랫말 만들기	통일관련 노랫말 만들어 부르기
미술	디자인	통일포스터 그리기	
	미술의 생활화	통일만화 그리기	

2. 학교 IPTV 콘텐츠 활용 수업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PTV 회선을 25개(일반교실 18, 특별실 7) 확보하여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중 교과 영역에서 2학년 도덕, 3학년 생활국어(1학기), 사회, 국사 수업에 활용하였으며, 그 외 과목은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의 특별기획 프로그램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가.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1) 교과보조용 콘텐츠 학습모듈 구성

수업 흐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및 플래시, 이미지, 활동지 등으로 학습모듈이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표-2>과 같다.

<표-2> 교과보조용 콘텐츠 학습모듈 내용

콘텐츠	형식	내용
학습목표	플래시	학생들에게 이번 차시에 학습할 내용을 보여주고, 차시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묻고 답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음.
전개동영상	동영상	해당 차시에 학습할 교과 내용을 2~3분 길이의 고화질 동영상으로 제공. 3개의 동영상은 교사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알찬정리	플래시	학습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여줌.
알찬문제	플래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활동지	한글문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한글 문서로 제공
보탬자료	사진묶음 플래시게임 동영상플래시	교과내용과 연관된 주제의 사진 묶음 제공 교과내용과 연관된 학습 게임 제공. 수업중간 환기용·정리용 사용 차시 특성에 따라 해당 교과내용과 연관된 주제, 또는 심화학습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여 동영상이 플래시 모듈을 제공

2) 교과보조용 콘텐츠 학습단원

교과보조용 콘텐츠는 2학년 도덕, 3학년 생활국어(1학기), 사회, 국사과목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단원이 <표-3>와 같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이론보다는 상황과 생활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표-3〉 교과보조용 콘텐츠 교과단원

학년	과목	단원	차시명
2	도덕	4. 남북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1)통일의 의미
			(2)북한주민 정치생활
			(3)북한주민 경제생활
			(4)북한주민 사회·교육·문화생활
			(6)외국의 통일 사례와 교훈
			(7)남북대화의 실천 사례
3	생활 국어 (1학기)	6.(1)남북한 언어의 차이	(1)남북한 언어 차이의 이유
			(2)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1
			(3)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2
		6.(2)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1)남북한 언어 차이로 생길수 있는 일
			(2)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에 대해 어려워 하는 점
			(3)남북한 언어 차이의 해소방안
	사회	VI-3.우리민족의 발전과제	(1)남북한의 협력과 민족 통일
			(2)국토통일의 의미와 민족의발전
			(3)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의 과제
	국사	X.대한민국의 발전	(1)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1학년 한문과 수업



2학년 국어과 수업



3학년 미술과 수업

[그림-1] 학교 IPTV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공개수업

3) 통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활용

학년별·교과별로 추출된 관련단원과 학습요소의 특성에 따라 통일교육원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참고로 단원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표-4>와 같이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표-4>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안

장소	2 - 6반 교실	일시	2011.6.17.6교시	지도교사	○○○
단원	3(2) 남북한의 언어		수업주제	남북한 언어차이 극복방안	
수업모형	탐구 및 토의수업		통일관련 제재	남북한의 언어 차이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언어의 발음과 억양의 특성을 찾아 말할 수 있다. ·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심활동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둠별 토의 활동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통일관련 요소	자료/유의점
도입 (5분)	학습동기 유발	· ‘언어 차이 극복의 길’이란 동영상 시청 (통일교육원자료, 3분 40초)		남북한 언어차이	학교IPTV 통일콘텐츠 동영상 자료
	학습목표 제시	· 본시의 학습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전개 (30분)	북한 언어의 발음과 억양	· 교과서 134쪽 제시문의 음성을 들어보고, 북한 언어의 발음과 억양의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이 때, 교사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닌 발음과 억양 등 반언어적 요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모둠 토의	교과서 135쪽 표활용 모둠토의 학습지 학교IPTV 통일콘텐츠 동영상 자료
	언어이질화 극복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극에서 찾은 북한 어휘에 해당하는 남한 어휘를 바탕으로 직접 통일어를 만들어 본다.(학생들은 자유롭게 모둠별로 토의하여 통일어를 만들고 발표한다.) ·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이 때, 교사는 언어의 이질화를 막는 것은 통일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누구나 수긍 가능하고 실용 가능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남북간 언어 차이 해소를 위한 노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다.(통일교육원자료, 3분 7초) 			

정리 (10분)	학습내용 정리	· 북한의 어휘, 발음과 억양상의 특징들을 정리한다. ·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북한의 어휘, 발음, 억양	정리 모듈
	형성평가	· 학습한 내용을 질문을 통하여 확인한다.		문제풀이 모듈
	과제제시 및 차시예고	· 다음 시간에는 글의 목적에 따른 짜임의 차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임을 예고한다.		차시 내용을 확인
사후 활동	·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게 한다. ·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뿌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다.			

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대상 공개수업 실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교과관련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 IPTV 통일교육 교과보조용 콘텐츠에 수록된 도덕, 사회, 국어 과목을 제외하고 각 교과별 통일 관련 수업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 적용하였다.

가) 공개 참관 : 1,2,3학년 학부모 132명

나) 공개 수업 일시 : 2011. 6. 17(금) 5, 6교시

다) 공개 방법 : 수업참관 가정통신문, SMS를 수신하여 희망 학부모가 수업을
경청한 후 교원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표-5〉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학 년	반	교과	단원명	통일관련 학습 주제
1	1	한문	10. 속담	남·북한 속담 비교
	2	도덕	2. 나랏일을 이룬 자세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3	과학	6-2. 즐기 속 여행하기	금강산의 자생식물
	4	체육	육상-단거리 달리기 출발	통일이 되었을 때의 체육 발전
	5	음악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남·북한의 전통민요
	6	국어	5-2. 흰동이 생각	북한의 또래학생을 생각하며

2	1	수학	2-2 일차부등식의 활용	북한에서 사용하는 수학용어
	2	수학	2-2 일차부등식의 활용	북한에서 사용하는 수학용어
	3	수학	2-2 일차부등식의 활용	북한에서 사용하는 수학용어
	4	역사	2. 고려 귀족사회의 모습	고려시대와 현 북한 사람들의 신분비교
	5	가정	옷감의 종류와 특징	북한의 옷차림
	6	국어	3-(2) 남북한의 언어	남북한 언어의 차이
3	1	사회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과 특색	북한의 공업발달과정
	2	과학	4. 물질은 어떻게 표현할까?	평양 수지 연필공장
	3	미술	생활 속의 패션 디자인	북한 복식 이해
	4	생국	3-(1)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북한 언어의 이해
	5	기/가	3-1 우리나라 상차림	북한의 식생활 문화
	6	국어	무궁화	북한의 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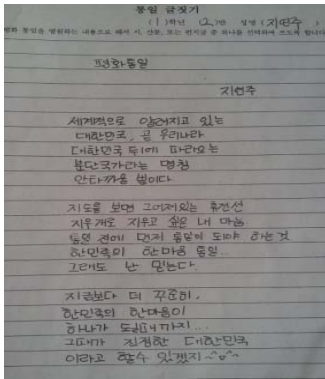
3. 통일관련 수행평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6>과 같이 도덕, 국어, 음악, 미술교과에서 통일 관련 단원과 연계하여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6> 통일관련 수행평가 실시내용

학 년	교 과	단 원	수행평가 영역	수행평가 관점표		
				상	중	하
1	도덕	(3) 나랏일은 이런 자세로!	통일 글짓기	통일에 대한 주체의식이 강하고 성의 있게 글로 잘 표현함	통일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족하나 성의 있게 글로 표현함	통일에 대한 주체의식이 부족하고 글을 성의 없이 써서 읽기 힘들
1	국어	마음을 물들이는 시와 노래	통일 삼행시	내용이 풍부하고 독창성이 뛰어나며 통일의지가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음	내용과 독창성은 다소 미흡하나 통일의지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내용이 빈약하고 성의가 없으며, 통일과 관련성이 없음

2	도덕	1.민족 공동체와 남북분단	통일 글짓기	민족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성의 있게 글로 잘 표현함	민족공동체의식은 부족하나 성의 있게 글로 표현함	민족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글을 성의 없이 써서 읽기 힘들
3	음악	리듬· 가락에 어울리는 노랫말 만들기	통일 노래 개사 하기	통일을 위한 가사 내용과 가락이 매끄럽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통일을 위한 가사 내용은 좋으나 부분적으로 가락이 어색하고 매끄럽지 못함	가사내용이 통일과 거리가 멀고 가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색함
3	미술	마음속 바라보기	통일 포스터	아이디어가 좋고 포스터 디자인의표현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잘 그림	아이디어는 좋은데 포스터 디자인의 표현력이 다소 미흡함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음



통일염원 글짓기(도덕)



통일 포스터그리기(미술)



통일염원 노래 개사(음악)

[그림-2] 수행평가 결과물

III. 영역별 창의적 체험활동

1. 학교 IPTV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자율활동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중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자치·적응활동 시간에 활용하였고, 특색교육활동 시간에 창의적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써 통일의식을 함양시켰다.

가. 영역별 창의적 체험활동 통일교육 시간 확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재량활동 시간을 <표-7>와 같이 확보하여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함양되었다.

<표-7> 창의적체험활동시간 편성

편성		시간배분		내용	
		연간정규시간	통일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활동		20		
	자율 활동	자치활동	20	5	협의활동(3), 민주시민활동(2)
		적응활동	10	5	통일관련 동영상 상영
		창의적특색활동 (통일교육)	14	14	학교 IPTV통일교육 콘텐츠 활용 수업
	동아리활동(통일염원반)		34	34	계발활동
	봉사활동		4	2	읍내 및 불갑사 주변 봉사활동
	행사활동		(별도)		통일관련 교·내외 행사

나. 자치·적응활동 시간 운영

자치활동 연간 20시간 중 5시간을 확보하여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여 토론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적응활동시간에 10분~15분을 할애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중 특별기획 프로그램의 영상을 <표-8>와 같이 상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북한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통일을 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8〉 적응활동시간의 통일영상 상영내용

회차	실시 일자	프로그램 명
1	04. 11	통일리포터! 통일독일 가다
2	05. 16	'통일 한마당' 신히민마을에 통일밴드가 간다.
3	06. 13	우리가 뽑은 최고의 통일 궁금증
4	07. 04	북한의 경제변화
5	09. 05	핵의 두얼굴
6	10. 10	비상구
7	11. 14	김씨 3대
8	12. 12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

다. 창의적 특색활동시간 운영

자율활동 영역 중 창의적 특색활동시간을 통일교육으로 14시간(1학기 7시간, 2학기 7시간)을 편성하여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 중 창의적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함으로써 통일의식을 함양시켰다.

〈표-9〉 창의적체험학습 실시 내용

실시일	시수	단계	영역	제목
04. 13	1/14	통합	통일필요성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
04. 27	2/14	씨뿌리기	북한이해	북한의 대나전략을 통해 본 통일문제
05. 04	3/14	싹틔우기	통일노력	특명! 통일의 걸림돌을 파내라
05. 11	4/14	꽃피우기	통일노력	100분 토론 : 통일, 어떻게 해야 하나
06. 01	5/14	씨뿌리기	분단이해	북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
06. 15	6/14	싹틔우기	북한이해	핵의 양면성
07. 06	7/14	싹틔우기	분단이해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진단한다.
08. 31	8/14	싹틔우기	북한이해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 편익
09. 07	9/14	싹틔우기	분단이해	우리의 이웃, 북한이탈주민 바로알기
09. 21	10/14	싹틔우기	북한이해	주변국의 협조를 서까래로
10. 05	11/14	싹틔우기	통일필요성	독일통일을 통해 본 통일이후의 우리모습
10. 19	12/14	싹틔우기	통일노력	통일이 주는 효과 : 지원강국
11. 09	13/14	꽃피우기	통일노력	통일이 주는 효과 : 선진일류국가
11. 23	14/14	꽃피우기	통일미래	분단이 남긴 선물, DMS



자치활동 토론



적응활동 영상 시청



특색활동시간 수업

[그림-3] 자율활동 시간 통일교육

라. 통일 기원 행사활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 속에서 통일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학교행사를 연구주제와 연결하여 학교 교내·외 행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표-10〉 학교행사 통일 프로그램

행사명	통일 체험 프로그램	시행 일자	추진 부서
체육대회	높은 기상 통일염원 한마음 체육대회	5월 20일	체육부
체험학습	민주성지 견학	5월 24일	학생부
축제	통일 어울림 '미림제'	10월 28일	특별활동부

1) 높은 기상 통일염원 한마음 체육대회

매년 실시해 오던 체육대회를 '높은 기상 통일염원 한마음 체육대회'로 주제를 정하여 실시(2011.5.20) 함으로써 학생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음으로 모든 경기에 임하도록 하였다.



교장선생님 훈화



통일한마음 백족경기



통일한마음 줄다리기

[그림-4] 높은 기상 통일염원 한마음 체육대회

2) 민주성지 견학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일정에 민주성지인 광주 5·18국립묘지를 포함하여 참배(2011.5.24)하게 하였고,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제주 4.3평화공원을 견학(2011. 5.23~5.26)하게 함으로써, 준비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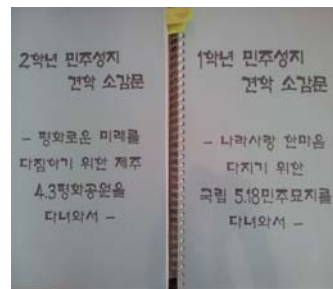
견학 후 소감문을 작성한 후 우수소감문(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시상하고 표창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5.18민주성지 참배



제주4.3평화공원



소감문 제본

[그림-5] 민주성지 견학

3) 통일 어울림 한마당 '미림제'

학교 축제인 '미림제'(2011. 10.28) 오전행사에 '북한 바로알기'를 코너를 만들어 북한언어 맞추기, 북한의 학교생활 등 O, X 퀴즈문제를 제시하여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 음식만들기' (평양만두, 함흥냉면)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이 시식도 하고, 만두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 통일동아리반 활동

학기초 통일동아리반의 활동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홍보용 포스터를 후관 홈페이지에 게시(2011. 4. 11)하여 희망학생 18명(학년 당 6명씩)을 선발하였다. 역할 분담을 주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표-11〉 통일동아리반 활동 내용

역할	인원	활동내용
방송	2	적응활동시간 학교 IPTV 통일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순에 의해 각 교실에 방송하고, 통일관련 행사가 있을 시에는 방송을 담당함
봉사	4	교·내외 통일기원 봉사활동 시 캠페인에 앞장서 리더의 역할을 함
축제	7	학교 축제 '미림제'의 북한바로알기 ○,× 문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북한 음식만들기 코너의 도우미 역할을 함
도서	5	도서관의 통일관련 도서를 관리하고, 체험학습 후기소감문과 수행평가 결과물을 편집하여 '통일문예 작품집'을 제작함



모집 포스터



적응활동시간 교내 방송



통일문예작품집 편집·제작

[그림-6] 통일동아리반 활동

3. 통일기원 봉사활동

통일동아리반과 환경도우미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라사랑 통일염원 캠페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읍내주변 및 불갑사 주변을 봉사활동 하면서 캠페인 운동을 전개(2011.6.18)하였으며, 군청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시(2011. 6.9/6.29)에도 캠페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봉사활동에 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봉사활동에 임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1시간씩 인정점을 부여해 주었다.



읍내 주변 봉사활동



불갑사 입구



불갑사 경내 봉사활동

[그림-7] 통일염원 캠페인 봉사활동

IV. 통일관련 방과 후 교육활동

1.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좌 및 공연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좌 및 공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교과서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느껴오던 북한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좌 후 소감문을 작성하여 우수 소감문(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시상하고 표창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가. 통일교육원 지원 강좌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학교 통일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통일교육원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표-13〉 통일교육 연수원 지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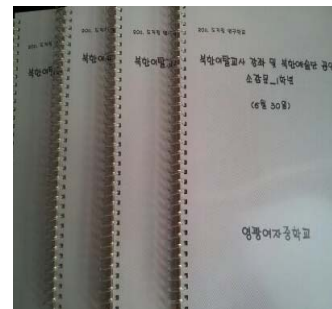
교육지원 분야	교육지원 형태	비고
환경 구성 판넬	통일 연대표 및 통일교육관련 패널자료 제공	23종
통일강연회	강사지원(맞춤형 북한실상 홍보교육)	2회(4월16일, 9월 17일)
통일관련 교육자료	북한교과서, CD, VTR 지원	
분단현장 견학	현장 견학비 지원	
통일의날 관련행사	운영비 지원	
학교 IPTV	학교 IPTV 회선료 지원	18개 회선
운영보고회	운영보고회 행사비 지원	



통일교육관 판넬전시



북한이탈주민 초청강좌



소감문 제본

[그림-8]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좌

나. 통일준비 공론화 교육계 사업본부 지원 북한예술단 공연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사전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홈페이지와 SMS문자서비스로 홍보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1) 일 시 : 6월 30일(목) 14:30~17:00
- 2) 대 상 :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 3) 장 소 : 대강당
- 4) 행사 주요 내용 : 탈북강사 강연, 눈높이 강사 강의, 북한 예술단 공연
- 5) 강좌 중점 내용 : 북한의 교육 체제와 내용
북한의 최근 변화상
통일의 편익과 비전
북한의 음악과 춤 공연 관람 등
- 6) 행사 일정

시 간	행 사	비 고
14:30-14:40	마음 열기	통일송 부르기
14:40-16:00	탈북강사 특강 눈높이 강사	북한 교육체제와 내용,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및 통일에 주는 시사점 등 *강의와 질의 및 응답
16:00-16:50	공연	북한 예술단 - 노래, 춤 등 북한 예술의 이해를 통한 통일 의지 다지기
16:50-17:00	마무리	통일송 부르기, 설문지 작성 등



홍보용 포스터



눈높이 강사 강좌



북한예술단 공연

[그림-9]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지부 지원 강좌

통일교육의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협의회를 자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상 지원이 어렵다거나 가기 어려운 지역선정에도 유관기관의 협조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강연할 수 있었다.

〈표-12〉 민주평통 영광지부 통일교육 지원

교육지원 분야	교육 지원	실시일
통일현장체험학습견학	간부학생 통일캠프 관련 비용 후원	6.1~6.2
북한 이해교육 분야	북한이탈주민 초청 강연회	7.12
체험학습후기 공모·표창	상금 및 상품 후원	11.13

2. 통일캠프 운영

학급 간부학생을 중심으로 분단현장 체험학습을 실시(주말 이용)하여 통일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견학(여름방학)을 통해 남북한 평화통일 의지를 다짐할 수 있게 하였다.

가. 학급 간부학생 통일 체험 캠프

선진통일한국 창조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급 간부학생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광지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협의회를 실시하여 통일의지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후기 우수소감문을 시상(최우수1, 우수1, 장려1)하고 표창하였다.

- 1) 기 간 : 6월 4일(토) ~ 6월 5일(일)
- 2) 장 소 : 철원지역 안보견학, 평택 해군2함대(천안함 견학) 등
- 3) 대 상 : 학급 간부학생 36명
인솔책임자(1명), 지도교사(1명), 협조기관 안내자(2명)

4) 캠프일정

구 분	시 간	일 정	비 고
6월4일 (토)	08:00~13:30	영광 => 철원도착	이동
	13:30~14:20	중식	

	15:00~17:00	철원지역 안보견학 [평화전망대, 제2땅굴, 노동당사]	고석정 전적관에서 접수
	18:30~19:30	석식	숙소
	19:30~21:30	통일교육 및 레크레이션	숙소
	21:30~	휴식	숙소
6월5일 (일)	06:30~07:30	조식	숙소
	11:00~13:30	체험학습	허브아일랜드
	15:00~16:30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 견학	사전 인터넷 신청
	16:30~	평택 => 영광	이동



철원의 평화전망대



철원의 제2땅굴



평택의 천안함

[그림-10] 학급간부학생 통일캠프

통일캠프 소감문	
제 목 : 준비된 통일을 위한 분단현장을 다녀와서	3학년 4반 33번 최상아
견학장소 : 철원안보지역(제2땅굴, 평화통일전망대, 노동당사), 평택 천안함	
견학 후 소감(6월4일~5일)	
<p>이른 아침,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서 힘들고 귀찮았지만, 오늘은 통일캠프를 가는 날이어서 기분이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었다. 아빠에게 철원이 어디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강원도 철원군이고 거의 3.8선 밑에 있다고 하셨다. 막상 철원의 위치를 알고 나니 무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간부학생으로서 통일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떠났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먹으면서 가니 벌써 철원에 도착하였다.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폭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선생님께서 "폭음이야. 지금 군인들이 포격 연습하니까 너무 두려워 하지 마!"라고...말씀해 주셨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소리가 들려서 소화가 잘 안됐다. 점심을 먹고 첫 번째 견학을 시작하였다. 바로 제 2땅굴이다. 제 2 땅굴은 북한이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굴착한 남침용 군사통로이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 선생님께서 가고 오면서 다이내마이트 방향이 북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 정말로 북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p>	

었다. 도덕수업시간 선생님말씀이 실제로 와서보니 북한이 땅굴을 팠다는게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 다음은 평화 통일 전망대에 올라가 경치를 보았다. 북한의 산이 저멀리 보였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북한 탈북자들과의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북한 학생들 생활이야기를 들으며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그다음엔 북한 언니들의 공연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문화와는 달라서 그런지 흥은 안났지만 북한의 문화에 대해 알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내일 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잠을 청했다.

다음날 천안함을 보러갔다. 가는길에 매우 설 다. TV에서만 본 천안함을 실제로 내 눈으로 본 본당기에 놀랐다.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군인아저씨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묵념을 했을 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군인아저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사진을 찍고, 깔깔 웃었기에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선배로써 머리에 딱밤을 쥐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천안함을 보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안되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이 북한에게 식량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므로 이런 이유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떠나 통일이 이루어져 하나의 민족이 되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고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 웃음꽃이 피는, 땅이 작아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나라사랑 문화체험 캠프

가정적,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과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학생과 통일 동아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유적지 탐방 및 문화 체험을 통해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며, 남북한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았다.

가) 기 간 : 7월 18일(월) ~ 7월 19일(화)

나) 장 소 : 거제도 일원

다) 대 상 : 학생 32명, 지도교사 8명

라) 캠프 일정

일정		내 용	비고
7월 18일 (월)	09:30 ~ 12:00	거제도로 이동	
	12:00 ~ 13:00	점심	
	13:00 ~ 16:30	대우 조선으로 이동 및 관람	
	16:30 ~ 18:00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동 및 관람	

	18:00 ~ 18:30	숙소로 이동	
	18:30 ~	저녁 후 자유시간 및 취침	
7월 19일 (화)	08:30 ~ 12:00	외도로 이동 및 관람	
	12:30 ~ 13:30	점심	
	13:30 ~ 15:00	해금강 테마박물관으로 이동 및 관람	
	15:00 ~	영광으로 이동 및 귀가지도	



테마박물관



거제도 포로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림-11] 나라사랑 문화체험 캠프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교과별 통일관련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관련 단원에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통일관련 수업이 특정 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교사들이 알게 하였으며, 학습진도에 무리 없이 통일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통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나. 통일교육원에서 제작한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으며, 특히 최신 내용으로 구성된 동영상 자료가 많이 탑재되어 있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 다. 창의적체험활동과 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기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
- 라. 북한이탈주민의 강좌와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의 학교생활과 사회체제를 이해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라는 주제의 북한예술단 공연과 강좌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마. 현장 견학 체험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었으며, 체험 후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볼 때 살아있는 통일교육임을 알게 되었다.

2. 제언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가. 학교 IPTV 통일교육 콘텐츠의 교과보조용 자료가 현재는 도덕, 사회, 국어의 관련단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이 개발되어 탑재되었으면 한다.
- 나.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통일관련 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 다. 통일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용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 라. 북한이탈주민 초청시 학교 담당자는 그들에게 사전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강사들이 강의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사들은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경청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연수를 받은 후에 현장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마. 통일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1년간의 시범학교 운영으로는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2~3년을 운영해야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대전관저중(2010),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제고
- 대천여자중학교(2010),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한 통일의식 고취
- 광천여자중학교(2009~2011), IPTV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적 효과성 분석
- 통일부
 - (2010). 2010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 (2010). 통일문제 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 (2010). 북한이해 2010. 서울: 통일교육원
 - (2010).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 교육원
 - (2010).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010). 2010. 광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서울: 통일교육원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토론자료 |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배 건 | 영암초 교장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배 건 (영암초등학교 교장)

- I. 서론
- 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 V. 향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과제
- VI. 결론

I. 서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중의 하나이다.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일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정치적·사회적 동인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되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와 교사는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환경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통일 의식을 형성시키는데 교사 자신의 통일의식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여 교사는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며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노력하며, 학생들은 통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지적 수준과 통일 환경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통일 교육의 지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민족 염원의 정점인 통일은 통일교육이 제 위치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인식시키고, 남북한 이질화 문제를 해소해 가며, 남북한 공동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 통합될 수 있는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평화에 기초한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기르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로는 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 저해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념을 배양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②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을 이해하고 이를 '습관화'한다. ③ 분단과 전쟁의 폐해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 및 민족에 대한 혜택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④ 북한 주민과 '어린이의 일상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서를 고취시킨다. ⑤ 민족동질성을 인식하고 이질적 측면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관용성'을 지니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평화에 기초한 사실상의 통일 지향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남북한간 민족화해의 기반인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문제 이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즉 생활 속에서의 평화 만들기가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학교생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교육과 세계적 차원이라는 거시적 평화교육의 기초 위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 민족과 사회를 비평화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2. 민주시민성 함양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치 있는 추구대상인 까닭은 그것이 민족적 측면에서나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격상된 삶이란 보편적·민족적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시민사회에서의 삶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남북통일은 이러한 진정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이 곧 그 지름길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통일은 또한 민주시민적 자질의 발휘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아집, 독선, 폭력 등의 비민주적 형태는 가장 큰 저해요소이기도 한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성 함양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과정이나 절차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이문화(異文化) 이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같음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50여년 간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연습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특히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4.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생활체험적 이해와 폭넓은 안보의식 함양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의 삶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하는데도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한 동포로서 장래 통일국가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제도적·외형적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스스로 남북한 주민생활상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마치 북한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과의 현실적 대결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이를 경계하는 자세를 인식시키는데도 그 목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무조건적 적색공포심에 기초한 수동적 안보의식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는 능동적인 안보의식(적극적 평화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안보의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안보문제는 동북아 정세상 통일국가를 건설한 이후에도 필수적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1.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제

과거의 통일교육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해 온 방식, 즉 분단의 원인과 과정, 피해,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도식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현재의 삶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라는 주제를 다룰 경우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여준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산가족의 고통문제와 같은 분단의 피해의 극복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고통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고통으로 공감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사랑 등을 열거하게 한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하게 한 후, “만일 그러한 자상한 어머니가 오늘 안 계신다면?”, 나아가 “그런 어머니를 이제 볼 수 없다면?”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울러 자신과 아버지, 언니나 누나, 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것인지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초등학교 학생들 자신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적 이해를 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을 논의할 경우에도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이 되면

현재 남과 북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적정 규모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돈을 활용할 경우 우리 어린이들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수만 권의 책을 구비한 도서관, 인터넷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모두 갖출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 어린이들 개개인에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임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어질 통일이 가져다줄 혜택이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들이 겪는 아픔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통일이 되어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각종 경기에 참가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금메달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의 문제 :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중심으로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원리를 추구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회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이질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한 이질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같음, 즉 동질성 또한 면면히 유지되어 왔다. 문제는 동질성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반드시 긍정적 작용만을 하지 않으며, 이질성이 반드시 그것에 부정적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애니메이션 또한 다른 방향을 지향해 왔다. 우리의 경우 디즈니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뚜렷하고 때로는 각이 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흔히 이를 유화톤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유럽의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 선이 부드럽고 장면들이 수채화같은 인상을 준다. 이를 흔히 파스텔톤이라고 한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유화톤과 파스텔톤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을 창조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문화적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화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남북의 '긍정적 다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 뿐이 아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는 긍정적 다름을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음악의 경우만을 보면, 북한 민족음악의 역사원칙은 민족전통음악을 복원하고 보존하되, 그것은 역사주체인 인민대중들의 현대적 미감을 중심적인 근거로 삼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민족음악이 현재적으로 발전시킨 민족음악은 풍부하게 발전하였지만, 바로 그 역사원칙 때문에 민족전통음악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남한의 음악과 만나야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

북한음악에 있어 새로운 악기를 개량하여 실제 음악계에 적용, 활용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다름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보여 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량 악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전통음악 연주는 물론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점, 전통악기와는 달리 배음과 음량이 풍부해져 합주할 때 저음이 풍부하고 음량이 확대되고 독주악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독주 때 전통악기보다 기교를 더 부릴 수 있게 된 점, 서양식 관현악단과 배합(전체 또는 부분배합)이 이루어져서 같이 편성(배합관협악)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그 특성이 있다.

3. 남북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방법 이해

우선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이에 기초한 공존이라는 인식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분단 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서로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군비증강을 지속시켜 오게 했다. 그럼으로써 한반도는 냉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는 적대감과 대결심리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한민족을 과멸로 이끌 수 있는 전쟁이 다시는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지시키며,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능력의 함양으로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평화 문제 이전에 청소년들의 경우는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교실에서 힘이 센 한 아이가 폭력으로 자신을 구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탐구함으로써 평화교육은 시작된다. 즉 학교생활 속에서의 평화만들기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의 문제가 선행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의 평화, 세계평화의 문제가 논의된다.

4.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 문제

통일 사회의 미래상은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나눔의 문화가 풍성한 사회', '인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상승된 국력을 가진 도덕적 민주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시장 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기초라고 볼 때 민주라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 민주라는 가치는 '반공'과 동의어이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우월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맹목적 신념 함양보다는 그 원리와 지향가치를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해 인류가 여러 대안적인 이념과 체제를 구상하고 실험해 오는 가운데 최선의 가치이자 체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는 여러 대안적 이념과 체제들과 차별된 형태라기보다는 발전과정에서 여러 이념과 체제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온 열린 이념과 체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이념과 체제가 하나의 스펙트럼 속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여러 대안 중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구가해줄 수 있는 이념이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개방적 견해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교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이념이나 덕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동시에 소중한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1. 민족의 비전에 대한 교사의 자각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을 희망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나 오욕의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는 현재에 발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 뒤에 있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개선해 나가면서도 항상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게 된다.

이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응비의 도약대가 있다. 이 미래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진다. 어찌면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미래의 세계에서 주역이 될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훗날 통일을 이루었을 때 통일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세대에게 보이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 그것은 곧 학생들에게 통일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점, 나아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 교사들의 몫이 가장 크다고 본다.

2.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과거의 통일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점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관심과는 멀리 있는 통일교육을 시행해왔다는 점이다. 통일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통일교육 수요자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자가 원하는 것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저하되어 있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저하된 통일의식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는 북한사회를 다룰 경우 지도자, 권력구조, 이념 등으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또래 아이들의 생활에 맞추어 학습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인민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과외활동, 어린이들의 고민, 여가생활 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다양한 학습 및 실천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는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다양한 학습 및 실천 기회의 부여를 통해 통일 의지의 내면화로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통일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독후감 쓰기에서부터 북한관 견학에 이르기까지, 교과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활용하고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기회 및 학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교 주도의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나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실태를 교사가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통일교육을 하게 될 예비교사들은 대학 재학기간 동안 강의식 통일교육 방식, 교과서 중심의 정부의 통일정책 위주 수업, 주입식 통일교육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커리큘럼을 기획할 수 있고, 협동학습, ICT 활용 학습, 에듀테인먼트형 학습 등의 수업 기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더불어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교육정보와 민간단체들의 통일교육 정보 등을 찾아 응용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V. 향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과제

1. 교사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다양한 연수 기회 확대

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 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또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공영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 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학교교육은 분단을 극복하고 언젠가 이루게 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찾을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사 자신이 분단 배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합리적인 사고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학교장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 교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학교장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교사를 위한 각종 통일교육 연수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에 관한 일반연수에서 통일교육원이 주최하는 통일교육 직무연수와 특수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연수원 주관, 초등교과연구회 운영에서도 『통일교과』를 포함하여 교사들의 연구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라. 계획적인 교사의 자율연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사에서 보도된 영상물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작한 통일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통일관련 학습지도 방법 등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사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학습지도안 작성 시 통일관련 지도내용에 『통일교육』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교과지도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가.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통일교육은 학년별 연간 통일교육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도덕, 사회과를 비롯하여 국어, 예체능 교과까지도 통일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1) 국어과는 저학년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통일에 대하여 감흥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고학년에서는 남북한의 언어차이, 북한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 우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
- 2)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토대로 평화의

기초 위에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한 간의 도덕적·윤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 3) 사회과는 북한사회의 현실과 특성, 북한주민의 생활모습, 남북한의 생활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예체능 교과는 북한의 예술 활동과 특징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서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통일교육지침의 개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량활동 시간은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지도하고 주제탐구 활동에서도 북한 및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거나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다. 통일관련 동아리 및 계발활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통일과 관련된 동아리 및 계발활동반을 조직하여 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보충하고 자율성, 창의성, 협동심을 길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3. 다양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

가. 통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영상매체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나는 개인 및 소집단별 탐구활동을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일이다. 또한, 통일 교수·학습 활동은 영상매체와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정보수집활동과 간접적 현장체험 학습으로 생생한 사실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문제에 보다 현실적·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상매체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안내하여 실제 수업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참고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한 후 학교도서실과 전자도서관에 탑재하여 통일에 관한 e-Book학습 및 독서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교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학교의 통일교육 연간 지도내용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연간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을 작성하여 일반 교사가 각 학급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 교육의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통일준비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 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르게 갖도록 하고, 기본생활 습관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작성해 보았다.

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내 통일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방송과 공영방송 시청을 통하여 북한 및 통일국가안보에 관한 명상·훈화내용, 자신의 생각·다짐 등을 기록하여 통일의지를 높이도록 한다.

명상·훈화교육을 통하여 북한의 실정 및 통일에 대한 바른 생각과 행동을 갖고 미래 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극기심을 기르며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힘쓰도록 하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통일관련 자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학생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 '통일의 날'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북한 이해에 관한 출판물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연 2회 정도 통일의 날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1) 1년 중 6월(호국보훈의 달), 10월(국군의 날)에 '통일주간'을 설정하고, 시사 교육과 관련하여 1주일간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 2) 통일의 날은 통일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로 정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통일웅변대회, 통일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표어 짓기, 나의 주장 발표, 가족신문 만들기, 시화대회 등)를 실시하고 우수한 아동에게 통일왕 시상을 한다.
- 3) 통일주간에 실시한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작품은 교내에 전시하고 전교생이 관람하도록 한다.
- 4) 북한의 여러 가지 물품 및 북한의 화폐와 통일과 관련된 작품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전교생과 지역 주민들이 관람하도록 한다.
- 5) 각 교육청에 마련된 초등학교의 통일 종합전시관을 학년별로 관람하도록 한다.
- 6) 통일의 날(통일주간 토요일)에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활동 참여, 학교의 통일 관련 게시작품 감상, 교육청의 통일체험관 관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저학년은 그림으로, 고학년은 감상문으로 하여 자유 발표대회를 실시한다.

5.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

학교교육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통일학습 자료가 있는 장소에서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통일의 필요성, 북한주민생활 이해, 통일의지를 강화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세계화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 가. 현장체험 교육활동으로 '통일 체험학습의 날'을 설정하여 통일 체험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통일 체험학습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통일관련 학습정보를 제공받고, TV나 방송을 통해 어렵듯이 알고 있는 불확실한 남북분단 현실 및 통일인식을 확실히 하여 북한을 바로 알며, 집단 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 나. 통일 현장체험학습의 날을 설정하여 학교행사에서 연 4회 실시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통일 체험학습을 하도록 권장한다.
- 다. 연간 통일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서를 학년별로 작성하고, 통일 현장체험 학습 실시 해당 학년은 학년부장이 1주일 전에 통일 체험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실시한다.
- 라. 통일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내서를 작성하여 '통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의 주소, 위치, 입장료, 교통편, 관람내용 등을 안내하고, 통일 현장체험학습 시의 학습한 내용을 교과학습과 관련하여 통일학습지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통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 안내서의 예시자료를 안내한다.
- 마. 통일 현장체험학습의 날 운영 결과처리는, 3~6학년은 현장의 조사기록,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그룹별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 2학년은 담임교사와 학급협의 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 바. 학부모가 신청한 통일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현장학습을 신청할 때 통일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사. 통일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통일 현장체험학습장 안내도를 참고하여 통일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통일 현장체험을 실시한다.
- 아. 통일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휴가나 방학을 이용하여 통일 현장체험학습을 실천하도록 한다.

VI. 결론

통일교육은 보다 큰 통일로 향하는 측면이 있다. 이 큰 통일은 통일 문제에 따른 북한 사람들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초하는 데에서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상징하면서 출발하는 교육이다. 즉, 통일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북한 주민이 가지는 가치관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족 통합을 가시화 하는 노력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통일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족 정서적인 내용과 함께 통일의 당위성, 시너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며, 그에 따른 수업 방법으로 직접 느끼고 생각해 보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활동함으로써 체험 학습을 통일 교육에 적용시킨다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을 교실 밖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서,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향, 교육마당21통권 220호, 교육부, 2000
- 김봉수, 교사와 초등교육, 형설출판사, 1998
- 광주교육대학교, 연수교재(통일교육), 광주교대초등교원연수원, 1999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초등 통일교육의 방향, 2004
- 이병진, 초등교육학개론, 문음사, 1999
- 조기제, 통일환경의 변화와 초등 통일 교육, 진주교육대학교
- 정찬익 외, 초등교육학의 이해, 문음사, 1999
- 최길자,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 서울특별시교육
과학연구원, 교육연구논문, 2002
- 통일교육연구원,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초·중·고용)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초등학교 인정교과서‘통일’ 교사용지도서, 서울 : 그린필드,
2000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토론자료 Ⅱ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김성수 | 현산중 교장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김 성 수 (현산중학교 교장)

- I. 들어가는 글
- II.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III.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 IV. 맺음말

I. 들어가는 글

현행 학교통일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 이수제와 통일교육 시수 감축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도덕과 수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도덕이 선택과목이 됐고, 더욱이 이 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4~10쪽 분량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통일교육은 사라졌다고 허탈해 했다. 2009년 시·도교육청 협조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5.3시간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나마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원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통일교육원은 최근 발간한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이라는 책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단원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거대담론 위주로 서술돼 있어 청소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통일교육은 새 교육과정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고, 작금의 남북관계 까지 고려하면 학교통일교육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심제고와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함양시키는 통일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II.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통일교육의 실태

가. 통일 관련 주요 교과는 도덕과·국사과 정도이며, 그 내용도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수록되어 있어 교육의 집중도와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 통일교육은 연구시범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010학년도 통일교육 시범연구학교 지정 운영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1	1					1	1	1	1		2		1	1	1	11
중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6
고	1							1			1			1	1		5
계	3	2	1	1	1	1	2	3	2	2	2	4	1	3	3	1	32

다. 통일교육 관련 수능시험의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사회탐구영역에서 2008학년도 3문제, 2009학년도 1문제, 2010학년도 3문제가 출제되었다.

라. 방송에서 통일 및 북한관련 내용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보나 그 영향은 학교 통일교육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각종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텔레비전 등 언론이 절대적이며 학교 교육은 평균 10-20% 선에 머물고 있음.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TV와 대중매체 영향이 크다는 점은 학교 통일교육이 좀 더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 1TV	남북의 창	토 07:35-08:00
MBC TV	통일전망대	월 13:35-14:05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월-토 00:10-01:00 (16:05-16:55 재방송)
극동방송 라디오	통일을 위하여	토 20:20-21:00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월-토 05:30-06:00

※자료: 통일교육원 「통일지침서」, 2010

2. 통일교육의 문제점

가. 학교통일교육 주체 측면

1) 학교장 문제점

-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학교장의 관심과 열의가 중요함.
-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을 이끌어갈 학교장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알 수 있음

2) 교사 문제점

- 학생들에게 직접 통일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교사들 역할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음. 이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교사들에게 통일관심도와 필요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열의 있는 지도는 부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의 통일관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3) 학생 문제점

-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성적을 올리는 데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통일 관련 영역에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음.
- 즉 통일과 북한 관련 문제는 본인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음.

나. 통일교육 과정상의 문제점

- 1) 학교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호응도가 낮은 이유들은 학교통일교육 내용들이 부실하기 때문임.
- 2) 그나마 도덕과목에 통일과목과 관련 내용이 절반 이상 수록되어 있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더욱 더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음.
- 3) 통일 관련 수업은 교과수업보다는 오히려 교과 외 수업에서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알찬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음.

다. 통일교육 실시에 관한 문제점

- 1)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을까? 교사 및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며 아예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함.(조희제, 2011)
- 2) 그나마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만

일회성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내용에 있어서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및 교사들이 관심만 가지면 교육방법과 내용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에도 공문에 의해 구태의연한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음. 더욱이 연 1회 실시하는 통일관련 행사마저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3) 이러한 결과 학생들은 특별한 느낌과 의식이 없이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실정이며,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미리부터 거부감을 갖게 되는 실정임.

라. 통일교육 환경미비 등의 문제점

- 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환경조성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고취와 통일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 2) 통일교육에 대한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3)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러한 통일교육 환경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교 내 조직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통일관심도와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야 할 것임.

III.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1. 통일문제의 인식과 과제

북한 내부 정세는 통일교육이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곤란하며, 통일대비 차원 및 포괄적 시각 하에서 학교통일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환경을 감안한 통일문제 인식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 1) 통일이 민족사적 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데는 당위론적 통일교육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평가 받는 상황이며, 교과서에서 분단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음.
- 2) 장기화된 분단구조에서 성장한 청소년세대들은 통일문제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의 필수 과제임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는 청소년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현단계 우리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3)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에서는 무엇보다 통일문제가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며, 나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기 위한 문제임을 당위론적 논리를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적' 논리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
즉, 학교통일교육에서는 통일이 보다 학생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함.
- 4) 또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간 격차 및 이질성의 심화,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므로, 통일비용은 남북한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해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임을 이해시켜야 할 것임.
- 5)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은 결국 통일미래 비전을 개개인이 내재화하게 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므로, 학교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미래비전을 부여하는 데도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통일미래 비전은 단순히 통일된 나라가 더 커진 나라, 강해진 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른 삶의 기회를 주는 실제적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할 것임.

나. 북한 인식과 관련하여

- 1)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상생과 공존의 대상임과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임을 학생들에게 균형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2) 그리고 분단 이후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다. 남북한 차이 인식과 관련하여

- 1)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교과서들의 주장이고, 그 핵심 방안이 경제·사회·문화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전통문화에 대한 동질의식과 민족의식 고취임.
- 2) 남북한의 차이만 강조할 경우 생길 수도 있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혐오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남북한의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밥에 돌이 많다고 화를 낼 때도 돌보다 쌀이 많은 법”이라는 어느 교과서의 내용이 적절한 판단일 수도 있음.
- 3)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은 한국 사회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며, 점차 다문화사회로 옮겨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임. 따라서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제약되고 뒤튼린 남한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해야 것임.
- 4) 정리해 보면 남북한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 동질적인 장점을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라. 통일관 정립과 관련하여

- 1) 어떤 통일을 만들어갈 것인가 방법론적 측면과 통일미래상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은 통일철학으로서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2)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는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 복지를 가장 크게 증대시키는 가치로서 통일을 만드는 과정이나 통일 국가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기본 이념으로 적용되어야 함.
- 3) 통일국가의 정치공동체 인식의 토대로 민족공동체 의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열린 민족공동체 의식이 되어야 함.

마. 한반도 국제정세 인식과 관련하여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국가안보의식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함.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정서적,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사고에 의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임.

바. 평화통일의 의지와 통일역량의 함양과 관련하여

- 1)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한간의 체제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하여 민족간 화해와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 따라서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 평화통일의 의지가 중요함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확고한 평화통일의 의지와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은 평화적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쌍두마차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 3) 통일은 염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량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임.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임.

2.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가. 학교통일교육 시간의 실질적 확충

- 1) 현 교육과정 중 통일 관련 교과(도덕/사회(국사))에서 통일 관련 교육시수의 축소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 교육시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임.
 - 통일 관련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후반부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생략되고 있어 통일교육을 더욱 미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2)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며, 참여형·체험형 통일교육이 확대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학교별로 통일 관련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 통일안보 현장 견학 등 체험학습 장려
 - 북한이탈주민(청소년, 교사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개최하는 등 참여 교육 확대

나. 학생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 1) 일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주입식 수업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학생들의 흥미저하 초래 요인이 되고 있음.
 - 초·중·고 수준별 표준화된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현행 통일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일선 교사들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초·중·고 학습자 특성을 고려, 교육 기본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및 청소년 통일교육기관에 배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임.

다.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 확대

- 1)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전개할 때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함. 특히 학교장의 관심이 통일교육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2) 교사 대상의 체계적 통일교육을 확대할 필요 차원에서 각 지역별 교원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 관련 과목을 편성·운영함.
- 3) 초청 교육과 함께 여러 형태의 교원대상 연찬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함.
 - 담당 교사, 학교운영 책임자, 교육행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일교육 중요성을 설명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갖도록 촉구
 - 시·도 교육청별 통일교육 관련 담당교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일선 교육 관계자의 학생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라. 통일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1) 중앙-지방-일선학교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함.
- 2) 통일교육 연구학교 확대와 효율적 운영(2010, 현재 전국적으로 32개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3) 학교·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를 확대해야 함.

3. 도덕과 교과단원에서의 통일교육 과제와 방향

가. 중학교 도덕 교과

- 1) 단원명(천재교육 출판사)
 - 대단원 :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 중단원 : 1.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2. 북한주민과 민족애
 - 3.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2) 통일교육 토론과제와 방향

-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의 목표

-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고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을 비교해 보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조사해 봄
- '같음'을 발견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 찾기

- 토론과제와 방향

- 통일의 필요성을 추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 강조(통일의 실용적 이득)
예) 통일은 기회의 창 : 성장 동력 확보로 국격 상승, 개인의 이득창출 등 통일의 구체적인 편익 제시 ⇒ 통일의 필요성 인식
- 북한사회에 대한 나열식의 전개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사회의 작동원리와 변화과정에 대한 전망을 조망하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막연히 통일을 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통일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에 대해 점검 필요
- 실천으로 연결되는 평화통일 가치관의 내면화를 고민해야 함

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단원 : 평화와 윤리-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 1) 다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에서 민족 정체성의 문제, 통일에 따른 제반 윤리적 문제 등을 고민해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최우선적 과제인 민족 통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민족관, 통일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함.

IV. 맺음말

지금까지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여건이나 상황이 갈수록 위축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만 있다면 활발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담론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질적인 면을 고려하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한 번의 통일교육에서도 미래의 통일주역을 기를 수 있다고 볼 때, 형식적인 통일교육보다는 학생들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험형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은 물론 학교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교육 덕목이 될 것이란 점에서 '다름'을 이해하며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금강산 관광이 가능할 때만 해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내고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통일교육 담당자인지 힘들어 찾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통일세대인 학생들의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

참고문헌

1. 조희재, 「통일교육 이론과 실제방법론」, 2011.
2. 이미경,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2기 중등 교장(교감) 연수자료 「미래 지향적 통일교육」, 2011.
3. 천재교육, 중학교 도덕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2011
4. 연합뉴스, 2011.2.16. 자 보도
5. 권영경, 최근 북한 실상과 통일대비교육의 방향,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중등 도덕과 학습지도 직무연수」, 2010.
6. 윤기홍, 학교통일교육 위기, 통일신문, 2010.12.6.
7. 김상무, 「학교 통일교육의 인식론」, 한국학술정보, 2008.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토론자료 III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으로서 다문화교육적 접근

심한식 | 장흥여중 교감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으로서 다문화교육적 접근

심 한 식 (장흥여자중학교 교감)

- I. 다문화시대와 통일교육
- II.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 III.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에의 접근
- IV. 다문화적 접근을 위한 2009교육과정 분석
- V. 맺음말

I. 다문화시대와 통일교육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00년에는 49만명, 2005년에는 75만명,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8%를 이루고 있고, 2020년에는 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박찬석 외 8인, 2000: 34; 오기성, 2008: 136). 현재 학교 통일교육은 경색된 남북관계만큼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다. 청소년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의 증가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막연한 감상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4), 학교 통일교육은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어쨌든 다문화 현상의 진전과 그에 대응한 교육적 대안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이념적 측면에서 진보이든 보수이든 그 어느 누구도 거부·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한국 사회의 다원화·다문화는 이제 예정된 시대적 흐름이고,

학교 통일교육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신중하게 예측하면서 실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답보 상태에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다문화 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하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1.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분단 이후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우리 사회는 민족성과 시민성을 조화 있게 발전하는 교육이 요청되었다.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서 민족 주체의식과 함께 보편적 교육을 중시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민족적 긍지를 갖고자 우리 민족정신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인간존중사상, 평화애호사상 및 조화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남북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분단되었지만 통일을 슬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김기석 외, 2001).

학교 통일교육은 분단에서의 반공과 자유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여 왔다. 대한민국은 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선동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던 반공시기를 지나 현실적인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통일문제를 반영하는 건전한 통일교육은 상대인 북한이 있기에 그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 남북한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의 동향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1993년 '통일교육'으로 자리를 잡고도 반공적 색채나 안보교육으로 통일로의 진척이 함몰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 내용을 갖고 있으나, 남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민족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들은 냉각되는 수가 많다. 그만큼 통일교육은 민족의 분단 이후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변천과정과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고 있는 도덕과의 교과서 목표와 내용은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악으로 보는 반공 입장의 정부수립 및 과도기, 통일과 대북 안보를 강화하는 군부 통치기, 민족 화해와 화합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이행기로 변천하였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전개된 통일교육의 실재를 파악해 보면, 그 변화는 아래와 같은 <표>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은 그 내용 상 반공교육과 승공통일 교육, 공산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그리고 통일·안보 교육, 통일교육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의 단계¹⁾는 통일교육이 민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사고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표> 교육과정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천

시 대 구 분	정부수립 및 과도기		군부 통치기		민주주의 이행기			
	교수 요목기, 제1 교육과정 (1948-1963)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제5차 교육과정 (1988-1992)	제6차 교육과정 (1993-1997)	제7차 교육과정 (1998-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2008-)
내 용	반공 교육의 기초	반공 교육의 재논의	승공통일 교육의 성립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의 융합 국가안보 교육 강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민중 교육론 설정	통일·안보 교육의 지향과 비판	민족 통합적 통일 교육의 모색	통일교육의 대안적 인식의 확대(남남 갈등의 증폭)	자유민주 주의적 가치와 안보 강화 및 북한 인권 문제 접근 강화

1) 통일부 통일교육원(2010),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박찬석(2007),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파주 : 한국 학술정보(주) 참조.

특히 2000년 이후 제기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 평화·인권의 가치 추구 및 평화 문화 형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평화교육적 아이디어를 통일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통일교육은 다시금 냉전시대의 편향적·대결적 대북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009년에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이전까지 중시되어 왔었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조항이 삭제되었다. 다행히 최근의 대북 유화적인 제스처들로 갈등을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2.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필요성

현 정부나 이전 두 정부 모두 북한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실상을 가르침에 있어서 현 정부는 정치·경제 등 체제중심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 두 정부들은 북한 주민의 생활사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의 실상 파악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전 두 정부들은 사회문화적 삶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무력통일이 되든 흡수통일이 되든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제도적 통일을 넘어서서 문화 통합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통일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 접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 자체가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다문화교육 접근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다문화교육이 평화적 갈등 해결 및 편견 해소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평화교육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기에, 이전 두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형성된 상이한 문화와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로 공존하는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을 키워주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즉, 자신의 문화를 기초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재단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이해의 관점을 통하여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오기성, 2008: 137).

다문화 민주 국가의 시민들은 정의와 평등과 같은 국가의 보편적 이상을 존중하고, 이 이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헌신하며, 사회적·인종적·문화적·경제적 불평등처럼 민주적 이상을 저해하는 현실과 이상과의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지식·태도·기능 등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이 이러한 다문화 시민교육적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제도의 통일에 상응하는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II.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에의 접근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 철학을 반영하는 몇 가지의 가정에 기반을 둔다. 살리리(Salili)와 후세인(Hoosain)은 다문화교육의 기본 가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Salili & Hoosain, 2001: 9-10, 추병완 재인용). 첫째, 문화적 다양성은 긍정적이고 풍부한 경험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을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소수 집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교수 활동은 문화 교차적인 만남이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전체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 체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념, 이론 틀, 사고방식, 철학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일군의 기준이다.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개념, 아이디어 혹은 철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생활양식, 사회적 경험, 개인적 정체성, 개인·집단·국민의 교육 기회를 조형함에 있어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히 여기는 일군의 신념이자 설명이다.

둘째, 개혁 운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사회적·문화적·민족적·인종적·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 기획의 구조적·절차적·본질적 구성 요소들의 개정을 강조한다(이상 추병완, 2008a: 115).

셋째, 과정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과정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교육 환경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전숙자 외 2인, 2009: 45).

이에 여기서는 다문화주의의 이상 및 그것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기본 아이디어들이 학교 통일교육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와 낮은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 역시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문화·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의 보장,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 간의 상호 이해 촉진, 소수 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 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극복,

사회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천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주의가 실현된 사회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단순한 모자이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를 의미한다(추병완, 2007: 44).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볼 때 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 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적 삶의 중시이다. 그러므로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한국인의 범주에 새로이 포함되는 이질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사고·태도·행동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차별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한다. 다문화교육 관점에서의 학교 통일교육은 남과 북이 공유하는 긍정적인 동질성을 찾는 노력만큼이나 남과 북이 지닌 긍정적 이질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통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근거한 학교 통일교육은 다문화교육이 목표로 하는 문화·국가·글로벌 정체성의 적절한 균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은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학교 통일교육은 그 이념적 기초를 열린 민족주의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민주적 참여, 그리고 균등한 복지를 보장하는 통일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른 민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원형적 정체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거나 다른 민족 문화를 수용함에 따라 언제나 새롭게 변형될 수 있는 민족정신이나 민족문화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학교 통일교육은 개방성과 포용성, 연대성과 유대감을 갖추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 북한 문화와 외국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증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다름을 배제의 조건이 아닌 소통의 통로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것을 강조한다. 열린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학교 통일교육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랑과 관용, 절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세계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여 실천할 것을 중시한다(추병완, 2007: 47).

2. 통일교육의 목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 접근에 근거한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multicultural competence)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대면하는 민족적·문화적 배경의 주체들과 소통하면서 생산적 시너지를 구현해 가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책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쌍방향적인 사회 통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전 지구적 이주의 증가 등으로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증대하면 할수록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자기 성찰성은 점차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 다문화 환경에서의 문화적 개입을 위한 기술의 축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다문화 역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문화 역량은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능, 다문화 인식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 통일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다문화적 정체성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문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넓어진 경험 세계를 포괄하기 위해 자아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한다.

한편, 다문화 역량이라는 관점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 이주자

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다문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사회적 소수집단을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무력한 정책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주의 경험을 통해 쌓은 문화적 역량을 가진 문화 매개자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주민을 '기대되는 참여자', '소홀히 취급된 창조적 자본', '문화적 교량 건설자'로 보게 된다. 나아가 다문화 역량을 갖춘 학생은 뱅크스(Banks, 2006: 142, 추병완 재인용)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의 보편적·윤리적 가치와 원리를 내면화하여 국가 내 하위문화들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 반성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3. 통일교육의 내용

다문화교육의 기본 아이디어들은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 원칙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해 준다.

첫째, 통일교육의 핵심 목표인 다문화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다문화 지식, 기능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문화·문화적 다양성·반편견·정체성·평등·협력·정의 등과 같은 핵심 가치와 개념들을 통일교육의 조직 개념(organizing concepts)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념 중심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이 다문화 지식의 구성과 사고 기능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교육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최근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이해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통일교육에서의 북한 이해는 학습자들이 북한 사회의 신발을 신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남한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같음'을 찾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 학교 통일교육에서

북한이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문화의 다양성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북한 주민의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들 나름의 전통·경험·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문화 비교에서는 남북한의 문화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남북한의 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타문화 관점에서 자기 문화 조망에서는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인이나 타문화의 입장에서 우리 문화를 조망하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방문 등과 같은 북한 문화체험,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담 등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고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넷째, 문화 간 상호작용과 세계문화 형성에서는 북한 주민의 문화 역시 나름대로 세계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로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강조해야 한다. 즉, 모든 문화는 그 문화 자체의 논리에 따라 그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의 다양화라든가 타문화의 유입 및 습득을 반민족적이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보는 '자민족중심주의'나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무조건 선진국의 문화만 선호하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모두 거부한다.

그러므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분단 이후의 남북한이 단절된 생활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양측의 지향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상이한 사회제도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적 다름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부각시켜줌으로써, 통일교육에서 우리는 '다름'은 인정·수용·존중하고 '같음'을

발전·확대·창조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4. 통일교육의 방법

다문화교육의 여러 차원 가운데 공평 교수법(equity pedagogy)은 다문화교육의 방법적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공평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민족·사회 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평 교수법은 문화 감응 교수(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협동 학습, 지식의 구성을 강조한다.

문화 감응 교수는 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학생의 문화적 준거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수 방식이다. 달리 말해, 문화 감응 교수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습 만남이 더욱 적절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적 지식, 이전 경험, 준거 틀, 수행 양식을 활용하는 교수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 감응 교수는 소수집단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삶과 연관된 지식을 형성하게 하고, 다수 집단 학생들에게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넓은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상호 효과적이다(우희숙, 2009: 327). 통일교육에서 문화 감응 교수는 무엇보다도 탈북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IV. 다문화적 접근을 위한 2009교육과정 분석

1. 도덕, 윤리과 내용 체계

지난 8월에 발표한 2009개정 교육과정(교과서) 중등 도덕, 윤리과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학교 「도덕」

영역 \ 내용	주요 가치·덕목		중학교 1~3학년군	
	전체 지향	영역별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존중 책임 정의 배려	자율 성실 절제	(가)도덕의 의미 (나)삶의 목적과 도덕 (다)도덕적 성찰 (라)도덕적 실천	(마)인간 존재의 특성 (바)자율과 도덕 (사)도덕적 자아상 (아)공부와 진로 (자)도덕적 탐구
우리·타인과의 관계		효도 예절 협동	(가)가정생활과 도덕 (나)친구 관계와 도덕 (다)사이버 윤리와 예절 (라)이육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마)타인 존중의 태도 (바)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사)청소년 문화와 윤리
사회·국가·지구공동 체와의 관계		준법 · 공익 애국심 통일의지 인류애	(가)인간 존엄성과 인권 (나)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다)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라)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마)사회 정의와 도덕 (바)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사)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아)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자연애 생명 존중 평화	(가)환경친화적인 삶* (나)삶의 소중함과 도덕 (다)과학 기술과 도덕 (라)문화와 도덕	(마)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바)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참고사항

- ① 중학교 1~3학년의 내용체계를 ‘일반 수준’과 ‘심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개발 하였음. 따라서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러 ‘일반 수준’(4개 영역 모두 포함)에 대한 학습을 모두 완료한 후, 심화 수준으로 이행해야 함.
- ② 중학교 1~3학년은 내용영역별로 (가)~(라)는 ‘일반 수준’에 해당되고, 나머 지는 ‘심화 수준’에 해당됨
- ③ (*)는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요소를 의미함

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영역	주제	비고
현대 생활과 응용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생활과 윤리의 필요성 •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응용 윤리
생명·성·가족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의 윤리 • 생명과학과 윤리 	생명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사랑의 윤리 	성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의 윤리 • 친구·이웃 관계의 윤리 	가족 윤리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과 윤리 	과학 기술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자연의 관계 •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환경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 윤리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i> • <i>사회윤리와 정의로운 사회</i> • <i>인권존중과 공정한 사회</i> 	사회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적 책임 	직업 윤리
문화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가치와 윤리적 가치 	예술 윤리

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영역	주제	비고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 •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 사상 •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에 대한 탐구 	인간의 삶과 윤리 및 사회 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 유교 사상의 특징 • 한국 유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유교 윤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 불교 사상의 특징 •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불교 윤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가·도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 • 도가·도교 사상의 특징 및 한국 전통 사상과의 융합 	도가·도교 윤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고유 사상의 특징과 의의 	한국의 고유 윤리 사상
서양 윤리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서양 윤리사상의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 • 이상주의 윤리와 현실주의 윤리 • 쾌락주의 윤리와 금욕주의 윤리 	행복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도교 윤리 	신앙과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 결과론적 윤리와 공리주의 • 의무론적 윤리와 칸트주의 	공리·의무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주의 윤리와 실존주의 윤리 • 현대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 	현대의 윤리 사상
사회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자율 • 공동체와 연대 • 국가와 윤리 	개인·공동체·국가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 사회 정의 	민주주의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함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 7차교육과정 및 2007교육과정과 2009교육과정과의 비교 분석

우선 내용체계에서 통일 관련 단원은 진하게, 다문화 관련 단원은 기울임체로 표기하였다.

가. 중학교 교육과정

7차·2007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4개 대단원 중 Ⅲ단원에 집중하여 편재되어 있고, 3학년에서도 Ⅲ단원에서 2차시 정도는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교육과정에서는 ‘일반수준’(上권에 해당)에서 소단원 2개에만 편재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다문화 이해를 돕는 단원은 전영역에 고루 편재되어 있다.

한편 과목 집중 이수제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교육이 되기 쉽다.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7차·2007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도덕」 과목에서 대단원 2개 중 한 개 단원이 통일 관련 단원으로 편재되어 집중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09교육과정에서는 통일문제를 직접 언급한 단원은 하나도 없다. 한편 다문화 관련 단원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는 사회 윤리 단원에 편재되어 있고,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는 사회 사상 단원에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3. 2009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과 다문화 교육

결국 2009교육과정에서는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는 단원은 현격히 줄어들어(이는 사회·국사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교과에서만은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다문화를 다루는 단원에서 통일문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하여 지도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통일교육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물론 교과 이외의 통일교육으로 분단 현장 체험학습, 통일 계기교육으로 통일 한마당, 통일 퍼즐, 학예대회는 학교 단위로 필히 실시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많은 사례와 자료가 있어 본고에서는 약한다.

V. 맺음말

최근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평화 교육적 접근을 기조로 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과정에서 통일문제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학생 통일 의식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이종석, 2011: 179). 지금 학교통일교육은 가장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하튼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인구가 총인구의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에 따라 명실상부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로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제도적 통일을 넘어서서 문화 통합의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통일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 접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방법 측면에서 있어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유용성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통일교육의 이념적 기초, 목표, 내용, 그리고 통일교육의 방법을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어쨌든 북한은 소위 벼랑끝 전술로써 체제 유지를 해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통일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펴나간다면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리라 보며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도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고정식 외6(2004), 『통일지향적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 방안』, 통일교육원
- 김국현(2004),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양 : 인간사랑.
- 모경환 외3(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 교육과학사.
- 박찬석 외8(2000), 『통일교육론』, 서울 : 백의.
- 박찬석(2011), “학교 통일교육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방향 통일교육 콘텐츠에 대한 제언”, 『공주교육대학교출판부』 .
- 북한 이해(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 오기성(2008),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 우희숙(2009),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자녀교육”,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편.
- 이범웅(2008),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 모색”, 『초중등도덕교육』, 제28집.
- 전숙자 외2(2009),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도서출판 그린.
- 추병완(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 추병완(2008a),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덕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평가 연구』, 11(2).
- 추병완(2008b), “다문화 도덕교육 정립을 위한 시론”, 『초중등도덕교육』, 제28집.
- 추병완(2009),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한국도덕 윤리과 교육학회』 .
- 통일문제 이해(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지침서(201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참 고 자 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마당'메뉴) 등재 통일교육자료 목록(www.uniedu.go.kr)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2011.07	통일 필요성의 새로운 논리와 통일 이후 다양한 미래비전 제시	교사용	전 차시 공통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04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의 관계에 대한 설명	교사용	
학교통일교육발전방안과 사례	2011.02	'08-'10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집에서 발췌 정리	교사용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011.02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분석과 청소년 통일교육 방향 제시	교사용	
(IPTV 특별기획)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	2010.10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과정 이해	공통	
(IPTV 특별기획) 통일리포터! 통일독일가다	2010.10	통일독일 모습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조망	공통	
통일문제이해	2011.06	통일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 통일환경	교사용	
북한이해	2011.06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9.02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교사용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2007.01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교사용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 [동영상, 28분]	2005.03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발전현황, 통일의 비전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	공통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2008.12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	초/중	민족 분단의 과정
새 The bird [동영상, 20분]	2006.05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색(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중	
가지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07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손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등	
가지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07	가지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등	
가지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동영상, 14분]	2008.12	가지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등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북한의 교육제도 [동영상, 22분]	2002.11	북한의 학제, 교과목, 학교생활 등	공통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동영상, 21분]	2008.11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동영상, 20분]	2008.11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동영상, 23분]	2005.06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만화)	2007.12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중	
북한의 선거제도 [동영상, 31분]	2004.02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통	
남북문화이해지 [동영상, 80분]	2002.12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통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동영상, 33분]	2003.11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통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동영상, 47분]	2004.02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동영상, 36분]	2004.02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1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 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05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02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09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09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5.0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2007.02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7.01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09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태, 정보통신 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2007.0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09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2007.02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실태	교사용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12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북한의 체육 실태	2008.07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2007.02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7.01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04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2007.12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대남전략	2009.12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와 노선, 전개양상, 향후전망	교사용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 방향
갈등을 넘어 통일로	2004.09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03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12	독일의 통일과정과 분야별 통합현황	교사용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07	DMZ에 얽힌 과거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교사용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동영상, 20분]	2010.10	6.25 전쟁의 교훈과 분단현실 이해, 통일의지 함양	공통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05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요 쟁점과 전략방향	교사용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동영상, 9분]	2008.11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교사용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상생공영 시행시 모음집	2008.12	「상생공영 4행시 짓기」 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 공영정책 10문 10답	중/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7.12	헤미라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상상 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8.06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 · 자막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중/고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동영상, 7분]	2009.12	헤미와 탈북청소년 승준의 이야기	중/고	
화해 · 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06	여성 통일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	교사용	기 타
통일 · 남북관계 사전	2004.07	통일, 남북관계 관련 주요용어 및 개념	교사용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2005.07	각종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남북관계 분석	교사용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대북협상에 대한 관점, 특수성과 어려움, 북한의 협상행태, 남북 협상 문화 등	교사용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06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법사회학적 접근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교사용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2007.02	남북 인적교류 정책, 현황, 의의	교사용	
2008 통일교육 웹진(Unizine)	2008.12	2008년도 월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종합본	교사용	

2011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